

문화 서재

38.2 °C

SIDE A

문화서재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6만 평 규모의 뚝섬한강공원이 봄부터 가을까지 '뚝섬 대정원'으로 변신한다. 2015년부터 진행해온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 규모 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 개최하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인다. 올해 행사 주제는 '컬러풀 한강(색색이 지 한강)'으로, 정원으로 인해 다채로워지는 한강 경관을 강조해 대도시 서울에서 정원과 조경이 가지는 힘과 역할에 주목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선보이는 정원은 총 76개로, 국내외 전문가가 조성한 '초청정원'과 '작가정원'을 비롯해 '기업동행정원', '학생동행정원', '시민동행정원' 등을 만날 수 있다.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10월 8일까지.



광화문광장 야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선선한 초여름 밤을 아름답게 장식할 야외 오페라가 열린다. 6월 11일과 12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서울시오페라단이 준비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펼쳐질 예정이다. 작품은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단막 오페라로,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서민의 삶을 그린다. 지휘자 김덕기가 포디엄에 오르며, 엄숙정이 연출을 맡았다. 소프라노 조선형, 테너 정의근, 이송욱, 바리톤 유동직, 박정민, 메조소프라노 송윤진, 정세라 등이 출연한다. 또 공개 모집해 선발한 시민 123명이 합창단으로 참여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사진 신청을 놓쳤더라도 현장 대기가 가능하다.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광장 벤치 등 열린 광장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



1

2

서울시극단 <연안지대>

예술은 때때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다. 불안한 국제 정세를 현현하듯, 서울시극단은 올해 두 번째 레퍼토리로 레바논 출신 캐나다 작가 와즈디 무아와드의 <연안지대>를 무대에 올린다. '연안지대'는 '화염'(그을린 사랑)의 원작 희곡, '술', '하늘'과 함께 전쟁 4부작으로 꼽히며, 레바논 내전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 여러 국가를 떠돌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 경험과 아픔이 잘 드러난다. 인간사에 존재하는 죽음과 인간의 존엄에 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연출가 김정이 서울시극단과 호흡을 맞춘다.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 세종문화회관 5씨어터 | 02.399.1000



K-푸드 페스티벌 넉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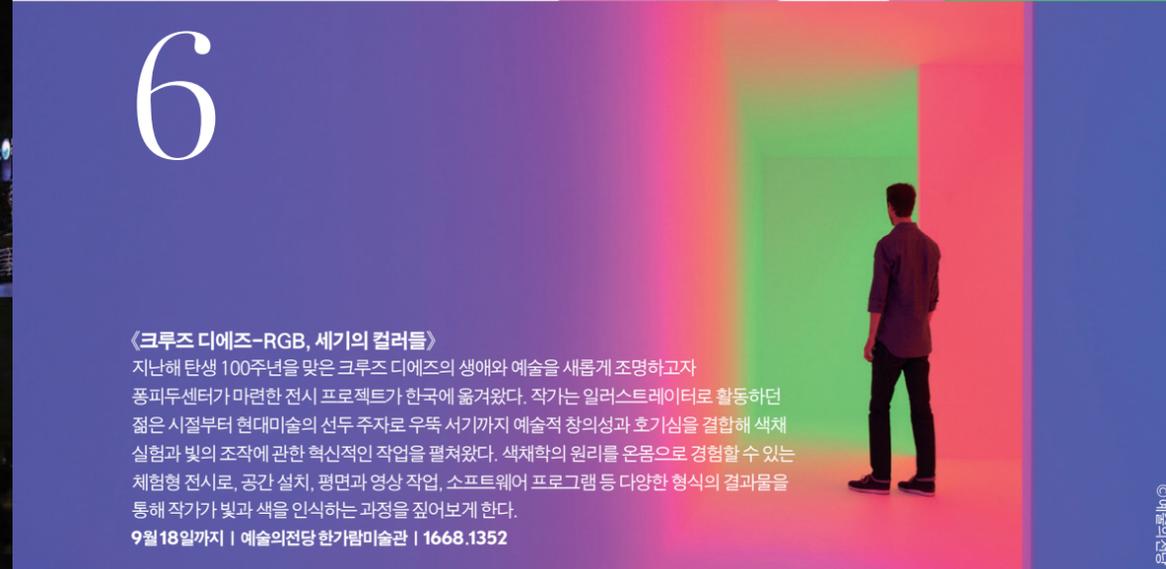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오후 4~9시)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 상설 푸드마켓이 열린다. 우리 고유의 정서인 넉넉한 인심, 서울시 캐릭터 해치가 가진 후한 성격, 그리고 외국인도 친근하게 한식에 문을 두드린다. knock-knock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행사 이름을 '넉넉'이라 지었다.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 높아진 한국 음식에 관한 인기에 부응하며, 이색적인 한식의 맛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게 했다. 운영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knock-knock.kr)과 인스타그램(@knockknock_festival)에서 확인하면 된다.



6

<크루즈 디에즈-RGB, 세기의 컬러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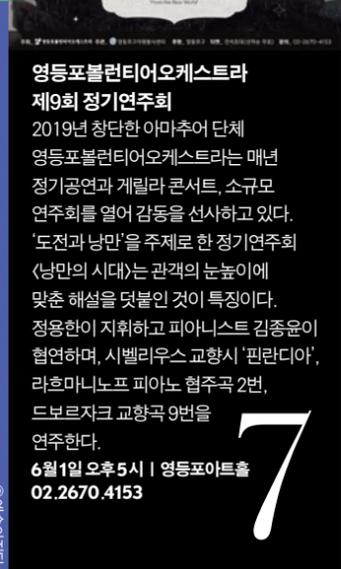
지난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크루즈 디에즈의 생애와 예술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퐁피두센터가 마련한 전시 프로젝트가 한국에 옮겨왔다.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던 젊은 시절부터 현대미술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서기까지 예술적 창의성과 호기심을 결합해 색채 실험과 빛의 조작성에 관한 혁신적인 작업을 펼쳐왔다. 색채학의 원리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공간 설치, 평면과 영상 작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을 통해 작가가 빛과 색을 인식하는 과정을 짚어보게 한다. 9월 18일까지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1668.1352



소리음악극 <보야르의 노래> 광진문화재단 상주단체 '올리브와 찐콩'이 광진어린이공연장에서 새로운 연극을 올린다. <보야르의 노래>는 퍼커션-리코더-실로폰 등 악기를 적극 사용한 음악극. 다양한 소리와 어우러지는 라이브 음악이 높은 몰입도를 보여준다.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 사는 소녀 리아는 갑자기 마을에 정착한 난민 소녀 쿠시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6월 8일과 9일 | 광진어린이공연장 02.2049.4700



영등포볼린티어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2019년 창단한 아마추어 단체 영등포볼린티어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공연과 게릴라 콘서트, 소규모 연주회를 열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도전과 낭만'을 주제로 한 정기연주회 <낭만의 시대>는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덧붙인 것이 특징이다. 정용한이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김종윤이 협연하며,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드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을 연주한다. 6월 1일 오후 5시 | 영등포아트홀 02.2670.4153



7

8

〈정영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한국 1세대 조경가 정영선의 삶과 작업을 짚어보며 1970년대 작가가 대학원생이던 시절부터 현재 진행형인 프로젝트까지 반세기 동안 성실하게 펼쳐온 조경 활동을 총망라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전시 제목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는 그가 좋아하는 신경림의 시에서 착안했다. 정영선에게 '조경'은 미생물부터 우주까지 생동하는 모든 것을 재료로 삼는 종합 과학예술이다. 그동안 작가가 우리 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유 자생종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 미술관 야외 중천부마당과 전시마당에 새로운 정원을 조성했다. 인왕산의 아름다움을 전시실 내외부에 재현하고, 계절감을 더하는 고유의 자생식물을 심어 관람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작품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9월 22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7전시실 | 02.3701.9500

9

서리풀 작곡가 탐구 시리즈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은 '서리풀 작곡가 탐구 시리즈' 6월 공연에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슈만과 그리그를 조명한다. 이번 무대는 두 작곡가의 가단조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피아노와 첼로의 조화를 보여준다. KBS 클래식 FM '생생 클래식'에서 '송영민의 클래식 다이어리'를 진행하며 대중과도 친숙한 피아니스트 송영민과 첼리스트 이호찬이 무대에 오른다.
6월 29일 오후 3시 | 반포심산아트홀 02.3477.2805

10

연극 〈벚꽃동산〉
안톤 체호프의 유작 '벚꽃동산'이 우리의 이야기로 재탄생한다. 영국 국립극장·메트로폴리탄오페라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무대를 오가며 주목받고 있는 연출가 사이먼 스톤이 각색과 연출을 맡았다. 이번 작품은 2024년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며, 원작의 캐릭터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이름을 입고 등장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배우 전도연·박해수 외에 손상규·최희서·이지혜 등 10명의 배우가 한 달간 무대를 꾸민다.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 1661.0017

11

〈한강, 서울 기억이 흐른다〉
서울기록원은 한강의 60년 변천사를 다양한 기록물로 보여주는 전시를 열고 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이 수도가 된 이래 한강은 500여 년간 문화·사회·경제·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는 거대한 기록 창고와 한강을 둘러싼 공공 기록과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의 경관 변화와 시민 삶의 변화를 살펴본다.
별도 공지 전까지 상설 운영 | 서울기록원 제1전시실 | 02.350.5600

12

〈간원일기 艮園日記〉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이 개관 11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 〈간원일기 艮園日記〉를 연다. '간원'은 박노수 화백이 1980년대 후반부터 머문 부암동 소재 화실 당호로, 그 시기 화백의 작품 30여 점을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속세를 떠나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머물고 싶은 화백의 심상과 도가적 선비 정신을 담고 있다. 더불어 1930년대 건축된 문화주택인 박노수 가옥을 소개하는 영상과 화백이 수집한 수석을 활용한 박유석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산천 승경〉을 감상할 수 있다.
2025년 3월 30일까지 |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 02.2148.4171

13

방과 후 노원어린이극장에서 열리는 공연 놀이터
노원문화재단은 오는 6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공연놀이터' 뮤지컬 편을 진행한다. 공연을 관람하고 해당 공연과 연계한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소개한다. 6월 한 달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뮤지컬 편은 뮤지컬의 구성 요소인 드라마·음악·안무 등 전반을 팀별로 배워보고 발표회까지 진행한다.
6월 5·12·19·26일 오후 2시 30분 | 노원어린이극장 02.2289.3400

14

2024 로즈아워페스타
일 년 중 올림픽공원 장미광장이 가장 향기로운 때, 도심 속 꽃향기가 만발하는 로즈아워페스타가 6월 6일까지 열린다. 165종의 장미 2만여 주가 만개한 공원을 만끽해보자.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까지 공연이 열리며, 광장 주변에는 플라마켓이 조성돼 나들이를 더욱 즐겁게 해준다.

15

2024 서울국제도서전
17개국 90여 개 해외 출판사·단체와 350여 개 국내 출판사·단체가 참여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C홀과 D1홀에서 열린다. 이번 도서전은 걸리버 여행기에서 주인공이 네 번째로 여행한 나라 '후이늴'를 주제로, '세계의 비참'을 즐기고 이성적·상식적으로 완벽한 '미래의 행복'을 발견해보기를 제안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빈국으로 참여하며,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오만의 문화와 출판 문화를 한국에 소개한다.
26-30 JUN 2024 HALLS C & D1 COEX, SEOUL

16



국립극장 연극 <맥베스>
 농인 배우 6명이 맥베스의 인물이 되고, 소리꾼 4명이 무대 위 사건을 노래한다. 잘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의 모든 배역을 농인 배우가 수어로 연기하는 작품이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는(미지의 세계로, 엘사아님)>으로 2022년 백상예술대상 '젊은 연극상'을 받은 연출가 김미란이 각색과 연출을 맡았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어느 집안의 장례식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대본을 재창작해, 왕위 쟁탈에 관한 갈등을 현대인의 유산 상속 다툼으로 새롭게 그렸다. 농인 배우 금예지·김우경·박지영·오서진·우지양(비취양)·이혜진이 참여하며, 소리꾼 김소진·김윤희·이승희·추다해가 호흡을 맞춘다.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02.2280.4114

SeMA 세마 L LEARNING

서울시립미술관, 다목적 공간 세마엘 시범 운영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를 상호 배움을 실천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배움의 장 '세마엘SeMA L'로 새롭게 조성했다. 가변성이 뛰어난 다목적 공간인 이곳에서 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한 상설 프로그램, 전시 연계 프로그램, 토크, 워크숍, 퍼포먼스, 스크리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개방한 이래 온오프라인 연계 상설 교육 '모드-잇다 마음구술'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술관 이야기'가 운영되고 있다.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이외에 특별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17



국립현대무용단 DMAU 프로젝트 <인잇>
 국립현대무용단은 아시아 무용 교류 활성화를 위한 DMAU Dance Makes Asia Become the Universe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첫 작품으로 신작 <인잇>(안무 김성웅)을 선보인다. 한국 무용수 2명을 포함해 일본·대만·베트남·싱가포르 등 아시아 무용수 11명이 워크숍을 통해 최종 선발됐고, 작품은 한국에서 초연한 뒤 해외 무대로 활발히 유통할 계획이다. <인잇>은 '단순함 속의 복잡성', '반복 속의 깊이', '무의식과 의식의 공존'이라는 역설적 키워드 아래 무용수 개인의 삶, 고유한 몸의 역사, 춤의 본질 등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6월 7일부터 9일까지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02.2280.4114

서울우리소리박물관 특별전 <오늘 만난 토리>
 국내 유일 민요 전문 박물관인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이 민요의 음악적 특징인 '토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토리를 주제로 삼아 대표 민요와 유물을 소개하고, 한자리에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2025년 5월 22일까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기획전시실
 02.742.2600

19 OASIS

제15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국내 최대 오페라 축제인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이 5월 25일 개막해 7월 7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이어진다. 올해 축제는 다섯 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푸치니 서거 100주기에 기해 마련한 갈라 콘서트 <위대한 푸치니>를 시작으로,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 <피가로의 결혼>, 누오바오페라단 <나비부인>, 오페라팩토리의 가족 오페라 <마님이 된 허녀>가 이어지며, 더뮤즈오페라단의 어린이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로 막을 내릴 예정. 어렵게만 느껴지던 오페라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기회가 될 것이다.



20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20

SCENE

- 인구절벽 시대의 서울형 예술교육
- 10 나가고 서울형 예술교육, 5개 플랫폼에서 뻗어나가다
- 12 살펴보고 일상에 예술적으로 스며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다섯
- 16 즐기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엄마아빠도 함께 행복한 예술 놀이터
- 20 함께하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웅산 일상 속 '예술하기'를 제안하며



COVER STORY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웅산 하루에도 온탕과 냉탕을 수십 번씩 오가는 자극적인 일상. 그런 일상마저 예술이 되는 곳, 예술하기 좋은 공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웅산이 당신의 취향에 예술적 온도를 제안한다. 악보의 아름다움은 눈에 담고, 눈과 귀로는 당신의 온도에 꼭 맞는 음악을 느껴보자.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예술적인 일상의 2막이 펼쳐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20쪽에서.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작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4년 5월 3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 24 예술가의 진심 함께하는 배우 우미화의 온도
- 30 예술인 아카이브 김은정
- 32 예술인 아카이브 안희연
- 34 페이퍼로그 지역문화팀 강민혜 다정한 마음으로
- 36 인사이드 울여름, 당신을 춤추게 할 서울비댄스페스티벌

- 42 인사이드 일년 내내 예술적! 노들섬 상설 기획 프로그램
- 46 트렌드 아프리카 창조도시의 미래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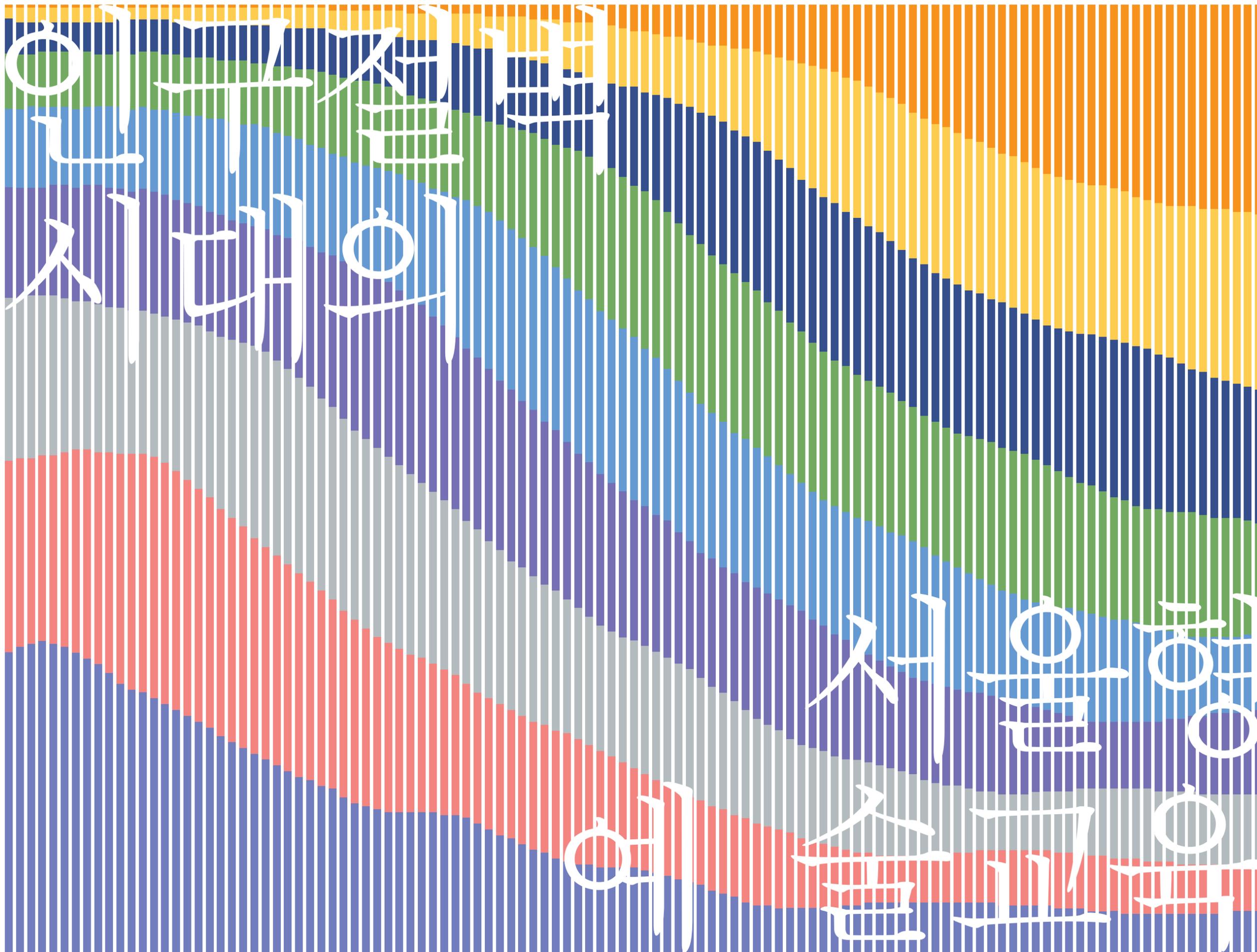
COLUMN

- 52 박현갑의 문화의 창 청와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해보자

- 54 삶의 책장을 넘기며 '오래된 미래'를 걷는 시간
- 56 동시대적 고전 읽기 새로운 고전의 계보학을 위한 서문
- 58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함께 듣고 싶어서
- 60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전기툼 조각가 90세 김윤신의 화영연화
-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FOCUS



빠르면 내년, 우리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심화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상승하고, 9~24세 청소년 인구는 그에 반비례하듯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 OECD 국가 중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우리는 모든 변화에 있어 빨랐다. 지난 60년간 성공적인 산업화 국가로 부상한 한국은 상당한 인구 변화를 마주했다. 인구는 단기간에 대도시로 집중됐고, 도시화가 뒤따랐다. 연령대별 인구구조를 표현한 그래프는 거센 변화의 물결처럼 그 비율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새로운 성장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전까지 교육의 대상은 대개 '어린' 이들이었다. 14세 이하 인구가 20%를 훌쩍 넘던 시절, 영유아와 어린이·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였다. 50년 사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년 증가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연령은 44.9세, 기대수명은 84.3세다. 이제, 고도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변화, 현상 너머를 바라보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략, 그리고 오랫동안 찬찬히 지켜봐주는 다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사회 구조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예술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재단은 창립 이래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경험하는 예술'로서의 예술교육을 강조해왔다. 심미적 교육에서 비롯한 '미적 체험'이라는 예술교육 철학을 토대로 통합예술교육 모델을 정립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 것. 그리고 2023년 서울시의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에 발맞춰 예술교육의 전환을 모색한다. 지역 곳곳에 세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거점으로 삼고, 올해부터 서울형 예술교육 대표 브랜드 '서울시민예술학교'를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다섯 곳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동등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다. 크게 마음먹지 않아도 일상에서 편안하게 예술적인 경험을 누리는 일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에 들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어린이', '청소년' 등으로 규정되던 대상의 범위가 대폭 확장했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교육 적령기가 아니라고 여겨 이른바 '센터'를 멀리하던 이들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서울형 예술교육은 당신이 누구든, 예술적 경험을 원하는 모두에게 꼭 맞춘 프로그램을 꾸준히 준비할 것이다. 그 '예술적 경험'은 당신이 발걸음을 향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구조(1960~2070)

서울형 예술교육, 5개 플랫폼에서 뻗어나가다

공간의 담장을 낮추고 대상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서울형 예술교육이 찾아온다.

2006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하는 '서울형 예술교육'이 일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예술지원, 축제사업, 창작공간과 더불어 서울문화재단의 주춧돌이 되어온 '예술교육'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간에 몇 번의 부침이 있었지만,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는 전년의 성과 수치만 봐도 가늠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펼쳐진 '학교예술교육'은 2022년 TA 84명이 65개 학교에서 7,200명 학생에게 2,500회에 이르는 교육을, '지역예술교육'은 TA 12명이 아동 140여 명에게 거점형 키움센터를 비롯한 공간에서 106회의 교육을 제공했다.

양적 팽창뿐 아니라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지향하려는 심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의 가치 철학인 '미적 체험'을 전파했다. 덧붙여 핀란드 아난탈로아트센터Annantalo Arts Centre·미국 링컨센터Lincoln Center Education 같은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재단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 집중하던 예술교육에서 시민 전체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술교육을 확대해나간다.

새로운 예술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향후 5년 이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예술교육의 방향을 묻는다면 필자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서울형 예술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관계자 간 교류를 촉진하고 예술교육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펼친다."

학교예술교육에서 시민예술교육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모색하면서 재단은 급변하는 환경에 주목했다. 지금까지는 '학교인' 학생들이 주된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학교밖'으로 고개를 돌려야 할 시점이다. 공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예술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삼은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Next 세대의 예술교육을 열겠다"는 포부로 'EX'(밖으로)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 이는 몇 가지 관점을 품고 있다. 첫째는 학생에서 전 시민으로 '대상'을, 둘째는 하나의 주제에서 융복합과 전 영역으로 '장르'를, 셋째는 학교에서 벗어나 권역별 거점으로 '공간'을 확장EXpand하려는 의도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시종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EXtend하며, 권역별 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가 관통하는 운영EXecutive 체제를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런 방향을 설정한 배경으로 2023년 8월 서울시에서 수립한「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제1차 기본계획이 적용된 지난 5년간(2018~2022)의 성과와는 별개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했는데,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 계획이 대상·사업별로 설계돼 분절적이라는 점, 광역을 중심으로 실행 체계가 구축돼 기초의 성장을 제한시킨다는 점 등이다.

이에 재단은 2023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에 주목했다. "서울문화재단who은 연중 시종제when로 권역별 예술교육사업이 전개되는 플랫폼where에서, 전 연령대의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형 예술교육what을 인근의 관계자와 협력하고 교육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상별 맞춤형how으로 제공한다."

서울형 예술교육을 선도할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재단은 2006년부터 진행해온 예술교육의 경험을 살려 올해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에 주력한다. 교육예술가와 단체를 지원하는 지원사업뿐 아니라 연령대별 시민이 직접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서울시민예술학교'를 설계한 것이다. 학교예술교육이라는 특명 아래 교육예술가TA를 선발해 학교로 파견하는 기존의 방식이 이제는 거점별 플랫폼에서 예술교육을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플랫폼은 기존에 운영하던 도심권(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서남권(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동북권(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동남권(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서북권(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이 가세해 총 5개소가 완전체를 이룰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될 세 곳은 이미 운영하는 센터와 달리 장르 색채가 짙다.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는 클래식 음악 전용 공연장(241석 규모)을

비롯해 다양한 크기의 레슨실·강의실 등이 있고, 수색동에 위치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은 건물 4층 높이에 달하는 층고 15.8미터의 무용 전용 공연장(256석 규모)이 들어선다. 미이동에 자리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은 연극·뮤지컬·전통예술에 특화된 공연을 위한 다목적 스튜디오와 강의실·세미나실·연습실 등을 갖췄다.

거점 플랫폼의 등장은「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에 따라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할 뿐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예술교육으로 예술교육에 관한 정책 기반을 고도화한다는 기대감이 뒤따른다. 2023년부터 본격화한 새로운 예술교육의 방향은 전과 다르게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르 특화 예술교육으로 연령 무관한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18년 전, 재단이 시도한 '서울형 예술교육 1.0'이 좋은 사례로 남은 것처럼 앞으로 펼쳐 새로운 예술교육도 대한민국의 예술교육계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상에 예술적으로 스며든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다섯

예술이 우리 일상의 쉽표, 느낌표, 물음표가 되도록, 영감의 발전소가 되어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다섯 곳을 소개한다. 이곳을 찾는 것만으로 당신의 삶이 예술적으로 반짝이게 될지 모르니!

#동북권 #어린이 #장·노년층 #가족 #전통예술·연극·뮤지컬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언제
2024년 11월 **개관 예정**

어디서
서울 강북구 솔샘로48길 14
우이신설선솔샘역부근

어떻게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725.36㎡
4층 | 세미나실
3층 | 교육·창작을 위한 움직임 기반 프로그램실 2실, 조형 기반 프로그램실 1실, 소리 기반 프로그램실 2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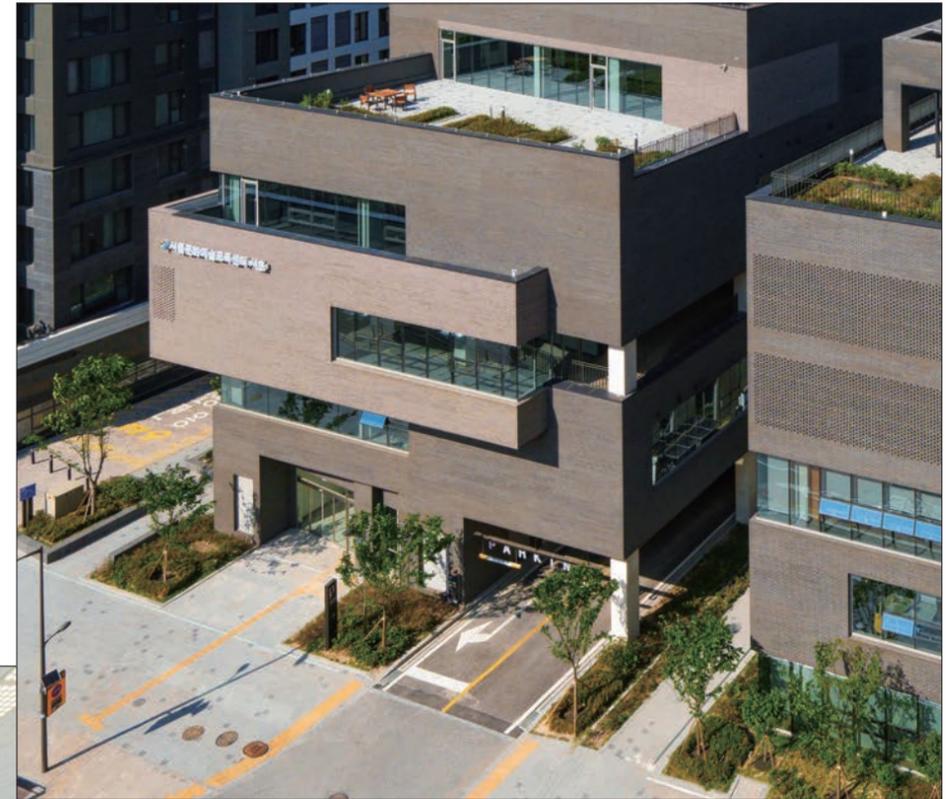
2층 | 연습·워크숍·공연을 위한 다목적 스튜디오, 연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움직임 기반 프로그램실, 소리 기반 프로그램실 각 1실
1층 |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실, 가족과 함께 머무르는 대기 공간
지하1층 | 연습실

무엇을
어린이와 장·노년층, 가족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전통예술과 연극·뮤지컬 등 극 장르에 특화된 창작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문화 약자를 아우르는 새로운 예술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의 이야기가 무대가 되는 My Life on Stage'라는 기치 아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의 특성을 반영한 정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부터 서울형 예술교육 대표 브랜드인 서울시민예술학교를 운영, 장·노년층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연·워크숍·공연을 통해 전통극과 뮤지컬을 쉽고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시즌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연령별로 공연 창작 심화 워크숍을 마련해,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직접 공연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어린이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의 특성을 살려 어린이와 함께 생동하는 예술 프로젝트도 이뤄진다. 시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예술교육의 장이 될 예정이다. 또한 센터가 자리잡은 동북권의 예술교육 플랫폼 역할도 강화하고자 한다. 기초문화재단과 협력해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예술교육 공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대관도 이뤄진다.



#동남권 #시민누구나 #음악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언제
2024년 말 **개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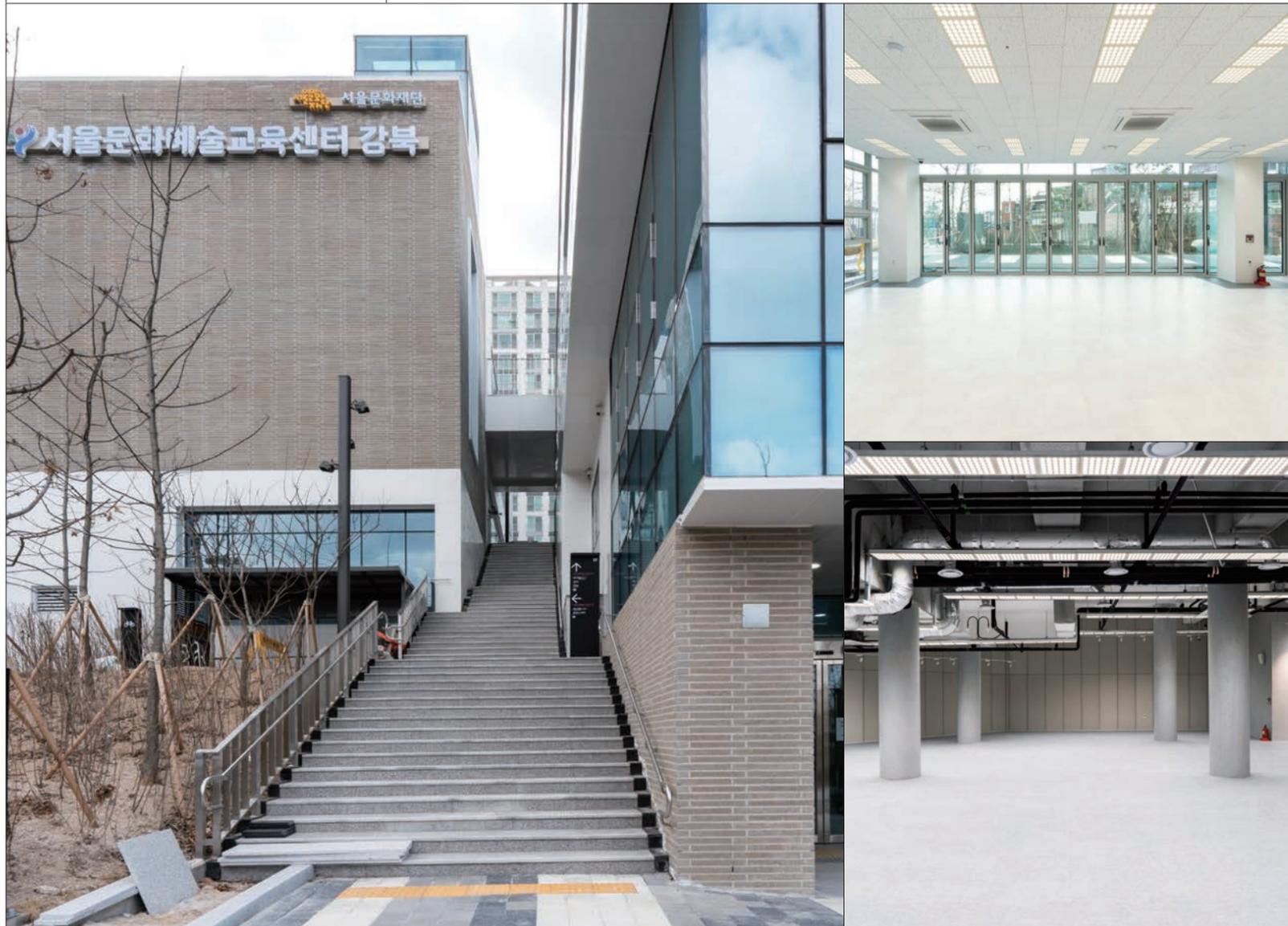
어디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33
9호선 신반포역부근

어떻게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7,819.29㎡
5층 | 공연장(241석 규모), 대기실 2실
4층 | 다목적 스튜디오, 대형 강의실, 악기보관실 각 1실, 클래식 음악에 적합한 공간음향을 갖춘 마스터클래스실, 앙상블실 각 1실, 대기실 2실
3층 | 앙상블실 2실, 중형 강의실, 악기보관실 각 1실, 레슨실 14실
2층 | 사무실 1실, 회의실 2실, 중·대형 강의실 3실
1층 | 웰컴라운지, 카페
지하1~2층 | 주차장

무엇을
콘서트홀이 밀집한 동남권에 자리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는 '음악하기'를 통해 일상속 생동하는 예술을 경험하는 열린 공간으로 문을 연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5개소 중 음악 장르에 특화된 센터로, 이에 어울리는 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시민이 순수예술에 조금 더 가깝고 편안하게 접근하고, 나아가 그 저변을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형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힘쓰며 현장을 선도하고자 한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는 개관 후 일반 시민과 음악애호가를 위한 감상·창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울시민예술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특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음악영재 지원사업과 연계한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고, 서울예술교육랩과 함께 음악-기술 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연습실 대관 수요가 상당한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연습 공간을 마련했으며, 클래식 음악에 적합한 공간음향을 구현한 대형 마스터클래스실과 앙상블실이 주목할 만하다. 1층에는 카페와 웰컴라운지를 조성해 근처를 오가는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연다.



#서남권 #어린이 #가족 #예술놀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언제
2016년 10월 개관

어디서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2
5호선 까치산역 부근

어떻게
지하1층, 지상1층, 외부 공간, 대지면적 7,586㎡
1층 | 운영사무실, 로비, 스튜디오A
지하1층 | 상설 예술놀이 공간, 스튜디오B·C,
미디어랩
외부 수조 | 야외 예술교육 공간

무엇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을 저장하던
김포가압장의 드넓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위해
2016년 탄생한 공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
함께하는 예술놀이 중심의 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올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과 함께 가장
먼저 서울시민예술학교의 시작을 알렸다.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시민 누구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르별 예술가와 만나
감동을 경험하고, 취향을 발견하며, 예술적
관점을 키워보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브랜드 사업. 5월 4일 오프닝을 시작으로
감상 입문(음악·시각·문학·연극·무용) 5개,
창작 입문(무용·시각·연극·문학) 5개, 창작
심화(음악) 1개 프로그램이 6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곧바로 여름(7~8월)·가을(9~11월)
시즌이 이어지며, 어린이·가족·성인 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드넓은 외부 수조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예술로 가득 메워진다. 서울시 '탄생공간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예비)
부모 가족 등 온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예술힐링놀이터'가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센터 전 공간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 연계 워크숍, 강연,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은 센터를
찾는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월까지 나만의 상상 속 동물을
스케치하고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보는 '해치와
함께 상상속 동물조각 만들기'가 운영된다.



#도심권 #어린이 #청소년 #성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언제
2020년 11월 개관

어디서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4호선 신용산역 부근

어떻게
공간1(지상1층), 공간2(지상5~6층),
규모 2,145㎡
공공시설동 6층 | 예술교육 공간(다목적실)
공공시설동 5층 | 예술교육 공간(강의실)
업무동 1층 | 복층 구조의 라운지, 예술교육
공간(강의실)

무엇을
용산역과 마주하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 속 다양한 예술 경험을 통해 삶의
감각을 깨우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탐색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당초 '감정'을 소재로 한 공간 감정서가와
청소년을 위한 아트포털로 문을 열었고, 지난
5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으로 재편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다채로운 예술교육
환경에서 예술과 만나고 예술로 더욱 즐거워지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재오픈과 함께 5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상설 프로그램인 <취향의 온도>를 진행한다.
5월 25일 오프닝 프로그램인 바洛克 음악 공연
<음악이 마음에 닿을 때>를 시작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온도를 다양한 감각으로 보고, 듣고,
읽고, 쓰는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음악 전문
복합 문화 공간 프란츠와 협업한 '음악의 온도'
공간에서는 전문가가 추천한 음악을 청취하고
악보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즐기며, 독립서점
아침달과 함께한 '시간의 온도' 공간에서는
사랑과 여름을 주제로 큐레이션한 시를
감상하고 직접 창작해볼 수 있다. 한지공예가
양지윤(오마치 스튜디오)의 전시와 만들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마음의 온도'를 주제로
식물의 에너지를 담은 작품을 만끽하며 움츠린
마음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란다.

#서북권 #어린이 #가족 #시니어 #무용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언제
2025년 상반기 **개관 예정**

어디서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322-2
경의중앙선 수색역 부근

어떻게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963㎡
4층 |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3층 | 무용인을 위한 연습 및 편의 공간
2층 | 객석
1층 | 공연장(256석 규모), 분장실, 무대감독실,
티켓부스, 카페
지하1층 | 분장실, 무대기자재보관실,
지하주차장



무엇을
'서울무용창작센터'로도 불리게 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은 5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중에서도 무용 장르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무용에 특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예술 창작-교육-
향유가 선순환하는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1층과 2층에 걸쳐 무용 전문 공연장이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부터 청년과 시니어, 가족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창작과 교육, 향유까지 주체·객체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술을 바라보고 즐기는 입체적인
예술교육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이에 재단
예술교육 브랜드 사업인 서울시민예술학교의
창작/감상 유형 프로그램과 연동한 통합 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용 안에서도
장르를 세분화해 연령대별로 적합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나아가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기초예술을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북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써 마포문화재단·은평문화재단 등
기초문화재단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방면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엄마아빠도
행복한
예술놀이터

무엇이든 가능하고 얼마든
뛰어놀 수 있는 예술수조를 품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아이와 엄마아빠가 따로, 또 같이
행복한 토요일이 펼쳐진다.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예술힐링놀이터'는 저출산과 함께 연상되는 '힘든 돌봄', '어려운 육아'라는 키워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축제와의 분명한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나타난다. 2024 예술힐링놀이터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해 엄마아빠의 주말 육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돌봄에 지친 엄마아빠 또한 창조적 휴식을 통해 잠시나마 힐링할 시간을 제공한다.

예술힐링놀이터는 온 가족이 '따로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모토로, 연간 6회차 모두 어린이·유아 대상 프로그램과 엄마아빠를 비롯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또한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으로, 어린이·가족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 센터의 정체성을 심분 살렸다. 예술힐링놀이터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공연·전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관객 참여형 워크숍과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해 일상에서 쉽게 예술교육과 조우하도록 기획했다.

지난 5월, 올해 처음 열린 예술힐링놀이터 오픈 주제는 '꿈과 환상의 장면 속으로'였다. 메인 프로그램은 예술무대 산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높이 5미터가 넘는 '붉은 여왕' 대형 인형이 등장하는 퍼레이드 극과 함께 온 가족이 대열에 합류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앨리스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술놀이존이 야외 수조와 실내 공간 곳곳을 가득 채우며 동화 속 한 장면으로 가족들을 이끌었다. 극의 주인공이 돼보는 앨리스 선발대회와 앨리스 리본 만들기 워크숍이 특히 현장 호응도가 좋았다.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두 번 진행된 연극 <달그랑탈강 노란양동이>와 양동이 만들기 워크숍은 그림책 속 한 장면으로 빠져들게 했고, 소울번즈의 비보이 공연과 비보잉 예술놀이 워크숍은 성황리에 중영한 TV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퀸) 파이터>의 장면 속으로 이끌었으며, 프렌즈오브뮤직이 첼로 4중주로 들려주는 영화 OST 플레이리스트는 영화 속 감동적인 장면들을 떠올리게 했다.

엄마아빠 대상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다도레

티룸에서 준비한 티 클래스, 『돌봄과 작업』과 연계한 북토크를 운영했다. 자녀와 분리돼 여러 가지 감각으로 차를 느끼는 고요의 시간을 만끽하기도 하고, 돌봄의 영역을 창조의 영역으로 치환해 이야기 나누보는 북토크로 시작해 '엄마아빠' 역할에 대한 공감과 응원을 주고받는, 모두가 꿈꾸던 시간으로 참여자들을 이끌었다. 아이들은 야외 수조 벽과 바다에 마음껏 그리고 칠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집에서는 억눌러온 예술적 잠재력도 마음껏 펼쳤다.

5월 예술힐링놀이터를 놓쳤더라도 괜찮다. 아직 다섯 번의 예술힐링놀이터가 남았으니 말이다. 올해 예술힐링놀이터는 운영 시기별로 세 가지 콘셉트를 마련했다. 5월과 10월은 장르를

포괄하는 대규모 '축제형', 6월과 9월은 장르 중심의 창작 체험 워크숍으로 꾸린 '예술캠프형', 7월과 8월은 공연 관람과 워크숍을 병행하는 '공연 나들이형'으로 운영한다. 곧 이어질 6월 예술힐링놀이터는 '그리기와 만들기'를 주제로 한 예술캠프형 행사로, 그림책(동화) 전시와 연계 워크숍, 작가 연계 디지털아트 워크숍, 내 마음대로 물감놀이 등이 진행되며 야외 물놀이터를 개장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매달 운영되는 예술힐링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함께하는 가족은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엄마아빠는 돌봄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얻을 것이다. 재단 사업과 연계해 시각·공예·연극·무용·서커스·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영역 예술가들과 협력하며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공을 들였으니, 매달 마지막 주말엔 고민하지 말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으로 향해보자.

예술힐링놀이터 연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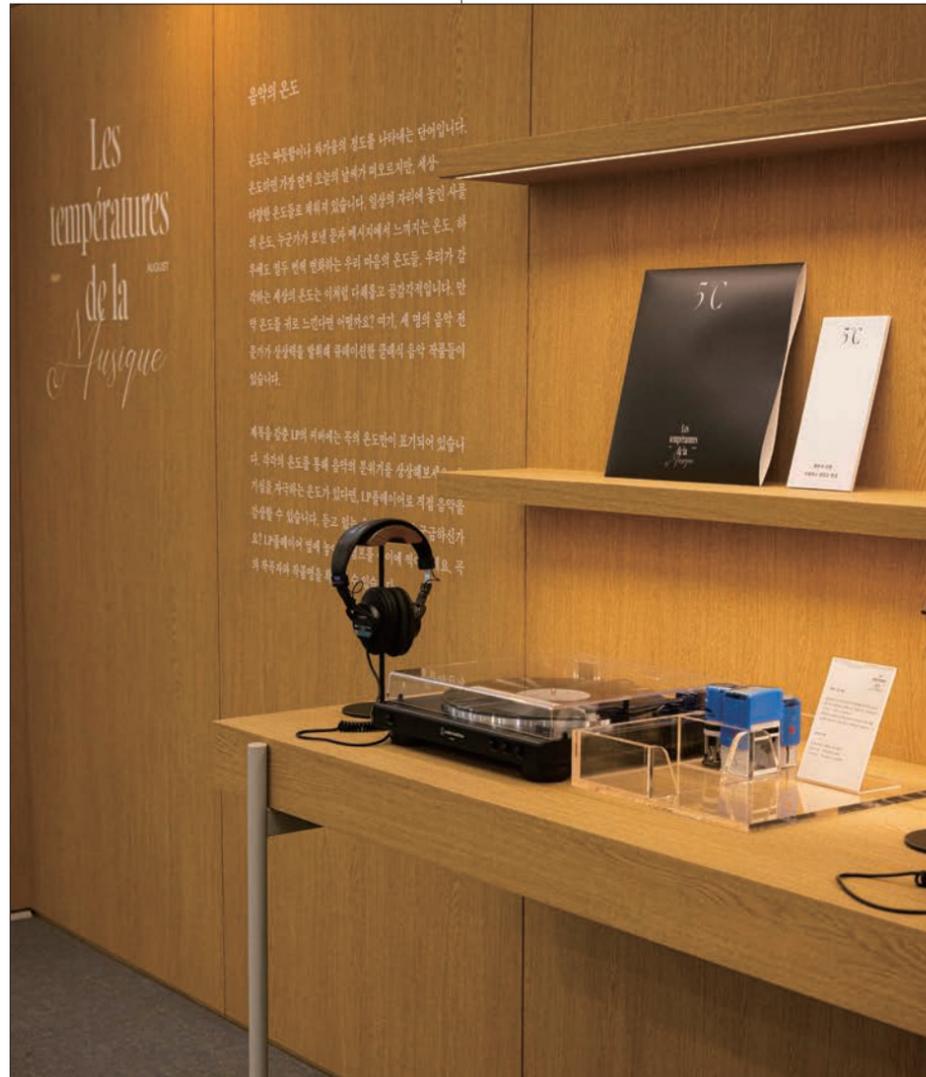
- ★ 5월 25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예술로 놀이'를 키워드로 하는 다양한 장르 축제
- ★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리기·만들기' 중심의 장르 체험형 예술캠프
- ★ 7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유아·어린이·가족 대상 공연 나들이
- ★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유아·어린이·가족 대상 공연 나들이
- ★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리기·만들기' 중심의 장르 체험형 예술캠프
- ★ 10월 26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예술로 놀이'를 키워드로 하는 다양한 장르 축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일상 속 '예술하기'를 제안하며

하루에도 온탕과 냉탕을
수십 번씩 오가는 자극적인 일상
속에서 당신의 온도에 꼭 맞는
예술을 찾아드립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2020년 11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개관해 그간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해 운영한 공간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든 예술을 향유하고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돋움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5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4호선
신용산역과 1호선 용산역 사이에 위치하며,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업무동 1층과
공공시설동 5·6층으로 이뤄진다. 시민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1층 공간은 상시로 예술 체험이
가능한 라운지와 휴식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5층은 미술·문학
등 창작과 감상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이 있다.
6층은 100석 규모의 다목적홀로 대형 강의와
렉처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새롭게 재정비한 1층 공간에서는 일상 속 다양한 온도를 주제로 한 예술 체험 프로젝트 '취향의 온도'가 8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맞잡을 때의 온도, 맥주를 마시기 좋은 온도, 고양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온도처럼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온도를 주제로 음악·문학·시각예술 장르로 구성된 부스에서 듣고, 읽고, 쓰고, 만드는 다양한 예술 체험이 가능하다. 상설 체험으로 운영되기에 사전 신청 없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월 22일부터 사흘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공간 오픈과 서울시민예술학교 봄 시즌 개강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큰 성원에 힘입어 모집과 동시에 마감된 이번 행사에는 400명 시민이 함께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첫날 피아니스트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제자이자 신예 연주자인 피아니스트 정지원과 포헨즈 연주를 선보였고, 이튿날에는 가수 요조와 장강명 작가가 직접 글을 낭독하는 자리가 열렸다. 셋째 날에는 물리학자이자

미술 애호가로 유명한 김상욱 교수와 정소영 작가가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특별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25일 토요일 오후에는 100명 가까운 가족과 연인이 공간을 찾아 오프닝 공연 <음악이 마음에 닿을 때>에 함께했다. 고악기로 연주되는 바로크 음악 공연을 위해 연주자 김규리(리코더)·아렌트 호로스펠트Arend Grosfeld(하프시코드)·윤현중(테오르보)이 합을 맞추며 평소에는 쉽게 볼 수 없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가까이서 직접 보고 듣는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을 찾은 관객들은 300여년 전 바로크 음악이 건네는 위로에 시공간을 초월해 음악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선물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개막 주간을 시작으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문화재단 대표 브랜드 사업인 '서울시민예술학교' 봄 시즌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여름 시즌에는 어린이·가족·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재즈 및 클래식 음악 공연인 서울스테이지 2024도 매월 한 번씩 센터에서 열린다. 또한 매월 두 번의 토요일마다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 강연을 마련했고, 오은·민구 등 유명 시인의 문학 강연을 비롯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하루에도 온탕과 냉탕을 수십 번씩 오가는 자극적인 일상에서 잠시나마 스스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다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 들러보면 어떨까.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아도 센터에는 항상 보고, 듣고, 읽을 예술적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으니, 공간에 머물며 나만의 예술적 취향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예술하기 좋은 공간, 언제 와도 예술이 가득한 공간을 꿈꾸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이 제안하는 예술하기를 통해 '일상이 예술이 되는 경험'이 가득하길 바란다.

2024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 및 프로그램 소식과 상세한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예술학교 누리집(sfac.or.kr/asa)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인스타그램(@artseducenter_y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SOCIATED

- 예술가의 진심
- 함께하는 배우우미화의 온도
- 예술인 아카이브
- 김은정
- 안희연
- 페이퍼로그
- 지역문화팀 강민혜
- 인사이드
- 서울비댄스페스티벌
- 노들섬 상설 기획 프로그램
- 트렌드
- 아프리카 창조도시의 미래 ②

함께하는

배우
우미화의

온도





여러 작품에서 만난 배우 우미화는 좀 차가웠다. 냉기가 흘러서가 아니라, 그의 인물들이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아서였다.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영화 <목화숨 피는 날>²⁰²⁴의 신경수 감독이 딸을 잃고 기억을 외면한 인물에 우미화를 떠올린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정은 온전히 숨겨지지 않고 기어이 빠져나와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힘겹게 침을 삼키는 영화 속 수현의 모습처럼. 그래서 우미화에게 물었다. 논픽션과 픽션, 인간과 배우의 경계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영화 <목화숨 피는 날>을 함께하셨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시나요?

연극 <뽕뽕뽕>²⁰¹⁴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고통과 치욕, 반성하지 않은 역사가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세월호 참사 소식이 더 놀랐던 것도 같아요. 그 후로 이연주 연출의 <삼풍백화점>²⁰¹⁶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하는 작품 몇 편을 했지만, 직접적인 행동을 많이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10주기’라는 말에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세월호 10주기를 극영화로 기록하는 작업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고 싶던 건 그간의 미안함과 죄책감, 반성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목화숨 피는 날>이 오래되지 않은 참사를 소재로 한 ‘극영화’라서, 배우로서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10주기는 사실만으로도 꼭 해야 했지만, 배우로서 작품에 접근하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제가 맡은 수현이 세월호 참사를 밖에서 바라본 인물이 아니라 유가족이라는 점에서 더 고민이 있었죠. 작품을 준비하면서 416 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의 『금요일엔 돌아오렴』²⁰¹⁵과 여러 자료를 살펴봤어요.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였지만, 유가족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을 제가 어떻게 전부 담을 수 있겠어요. 다행히 대본이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어서, 저 역시 순간의 고통을 건디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영화는 둘째 딸 경은을 잃은 병호와 수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병호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반면 수현은 기억을 차단하고 집에만 머물러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무기력한 상태라서, 수현은 눈물이 나오 끝까지 참아요. 영화가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고통을 이겨내는 여러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작품에 개인 우미화의 시선이 담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눈물을 경계했고요.

기억으로부터 도피하던 수현이 기억을 잃은 병호를 찾아 집을 나서게 됩니다. 담담하지만 큰 용기로 보였어요.

수현이 집을 나가는 행동이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져요. 아이의 죽음 이후 죽음 같은 삶을 살던 수현이 자신에게 손 내미는 다른 이들과 함께 마음껏 울고 또 다른 삶을 찾아가려구나.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영화는 당연히 슬프고 아파요. 하지만 수현의 가족 외에도 활동가, 안산 시민, 진도 주민 등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한 사람들도 다양하게 담았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병호와 수현이 세상으로 더 나아가갈 힘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화숨 피는 날>이 ‘희망’의 이야기라고 말해요.

슬픔의 기억을 안고 다른 삶을 찾는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고통에만 머무를 수 없으니까요. <목화숨 피는 날>이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어요. 그때 유가족들이 오셨는데, 저는 그분들을 첫 관객으로 생각했어요. ‘위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작업을 하는 동안 유가족들이 ‘영화를 좋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10년의 세월이 어떻게 영화에 다 담기겠어요. 이분들의 마음을 내가 좀 더 잘 담아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영화를 아주 좋아해주셨어요. 그동안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아프고 힘겹게 싸워온 시간이 많이 담겼다고. 저에게는 그리움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실 작품 속 인물에는 유가족들의 모습이 조금씩 녹아 있어요. 동수 아버님도 실제 2~3년간 세월호 참사와 동수의 기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억을 잃으셨대요. 동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억은 우리의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다.” 그렇기에 구호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 안전 사회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기억’이라는 단어가 모두 다르게 자리매김하겠지만, 이분들에게는 더 넓고 깊구나. 그래서 ‘기억’이라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목화숨 피는 날>을 포함해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작품에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말들의 무덤>²⁰¹³이 양민 학살을, <하나코>²⁰¹⁷가 일본군 위안부를 향한 사회의 시선을 다뤘죠. <쌌사인의 전사들>²⁰¹⁶은 김은성 작가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간 느낀 감정을 근현대사의 사건을 통해 전달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에 함께한 계기가 있을까요?

시대의 영향도 컸지만, 시작은 고인이 되신 김동현 선배였어요. 동현 선배와는 극단은 달라도 대학로에서 만나면 ‘언제 한번 작업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꾸준히 했어요. <말들의 무덤>이 2013년에 공연됐는데, 워크숍을 2011년부터 함께했거든요. 제주 4.3 사건부터 시작해 6.25 전쟁 전후 자행된 양민 학살을 다룬 작품이라 스테디도 하고, 여러 지역으로 답사도 다녀왔어요. 당시 ‘배우 우미화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 작업으로 ‘나’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공연 연습 때는 재현이 아닌 재연을 요구하셨어요. 녹음과 영상에 담긴 학살 목격자들의 말과 행동, 억양, 제스처까지 그대로 따라 하는 방식으로요.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때 주제가 객석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실제로 비극을 경험한 이들의 삶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캐릭터화할 수 있겠어요. <목화숨 피는 날>의 수현도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일종의 연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대개의 역할은 배우 개인의 해석과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저니까요. ‘나’를 배제하는 작업이 어려웠고,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웃음) 다행히도 그 과정을 치열하게 거쳐 가는 모습을 좋아해주셨고요. 그때 배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죠.

배우로서의 고민이 많던 때였나요?

스물다섯에 연극을 시작했어요. 항상 현실의 벽이 느껴지고, 좋아하는 일을 하긴 하는데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자질이 있나 싶고...

배우는 선택받고 보이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긴 도보 여행이 하고 싶어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갔고, 걸으면서 예기치 않게 저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시간에 불안해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생각하게 됐죠. 그동안은 더딘 느낌이었는데, 15년 정도 되니까 어느 순간 기회도 주어졌어요.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할 수 있고 조금은 잘하는 일이 됐구나 싶었어요.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릴 때는 선배들이 "10년만 버티면 돼"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스물다섯에 시작해서 서른다섯이 됐는데도 버티고 있고, 선배들도 그렇고. (웃음)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든 것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과정이 좋았어요. 그게 좋아서 연극을 시작한 거니까 그만둘 이유가 사실 없었던 거죠. 배우의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찾아서 배우기도 하고, 사람들과 뭔가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가 컸어요.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배우라는 직업의 대부분은 보통 기다림의 시간이라서 일정 부분은 그 시간이 당연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난 일을 돌아보고 밖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버틴다'는 사색의 단어를 쓰지만, 실제의 삶이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유쾌한 시간이 쌓여서 세월이 돼요. '삶이 꼭 버텨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씁쓸한 것 같아요.

'혼자'보다는 '함께'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연극으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연극배우로 살았잖아요. 무대에서 상대 배우에게 '네가 있어서 내가 여기 지금 있을 수 있다'고 늘 말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주로 해온 사람이라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전히 부끄러운 게 있어요. 배우라는 직업이 나로부터 시작해 나로서 무언가를 계속 만나고 던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본래의 기질과 역할 사이에서의 싸움은 계속 있죠. 2018년부터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물을 내는 과정을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여전히 적응 중이기도 하고요. 연극 20년 했다고 해서 무대가 쉽지 않은 것처럼,



카메라 앞에서 오래 연기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우들은 계속 자기와 싸움하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김동현 연출가가 배우 우미화에게 공동 창작을 제안한 건 아닐까 싶네요.

저는 동현 선배가 너무 그리워요. 작업자로서도 정말 훌륭하시지만, 인간으로서도 그러셨어요. 잘한다고는 한 번도 안 하셨지만, "미화야 너는 좋은 배우야"라고 하셨어요. 그게 응원이지 뭐. '좋은 배우'라는 말 안에 선배님이 생각하는 많은 것이 있었겠죠. 이제는 물어볼 수 없지만, 그 말이 참 좋고 힘이 됐어요. 제가 이미 좋은 배우여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졌어요. '좋은 배우라는 건 뭘까'를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지내왔어요.

'좋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안에 '잘한다/ 못한다'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배우'라는 말 안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저도 화가나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말에서 세상을 잘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요. 저는 사실 배우로서의 삶을 쫓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작품에 좋은 배우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건강히 잘 생각하는 사람이어야겠다고 싶어요. 몸과 마음 모두. '좋다'는 말에 함몰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무엇이 '좋다'고 여겨지는지도 계속 찾으면서요.

최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게 있을까요?

몇 달 좀 쉬었어요. 두려움도 많지만, 호기심도 많아서 다양하게 배우고 있어요. '땅고'도 하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재교육 프로그램처럼 연기 테크닉 수업도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 배우로서 쓸 기회가 있어도 좋겠지만, 그냥 지금 제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요. 하루하루가 되게 즐거우면 좋겠어요. 저는 배우로서의 역량과 자질 같은 걸 생각하면 배우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웃음) 그러니까 개인 우미화로 건강하게 즐겁게 살고 있어야 배우로서 주어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은정

시각예술/조각·설치
b.1983
@eunjungkimstudio
njungkim.com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4기
입주작가

“저는 청력 상실의 과정을 겪으며 소리를 몸으로 감각하는 경험에서 출발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세계에는 무엇이 있을까? 암흑이 삼켜버린 고요함만 남은 세계에서는 무엇이 태어날까? 청각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는 감각으로 세계와 마주하며 저는 존재를 확인해나갑니다. 제게 작업은 세계로부터 끊이지 않고 던져지는 소리를 손끝의 촉감으로 전환해 연주하는 과정입니다. 작품을 통해 알아들을 수 없는 세계를 피부로 감각하는 언어로 새롭게 구조화하고자 합니다. 명확하고 확신에 찬 언어에 앞서는, 순간에서 떨리며 몸으로 전해지는, 몸으로 들을 수 있는 순간을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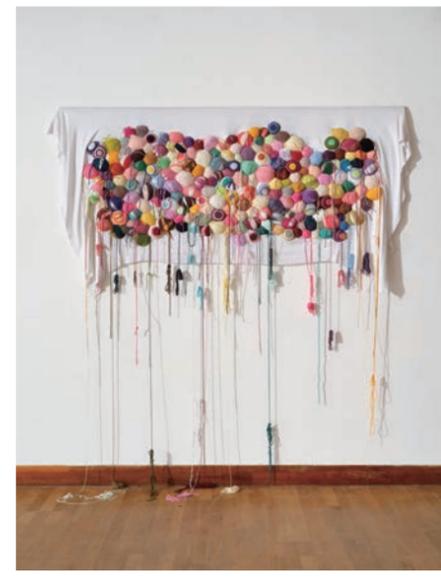
“미술을 좋아해서 전공으로 택하긴 했지만 제가 익힌 기술로 무엇을 표현할지 항상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물다섯 살 어느 날 갑자기 청력을 잃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나만의 가치를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과정에서 제 몸이 습관화해온 세계를 감각하는 방식이나 제 존재 자체에 관한 생각이 계속해서 변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내며 뉴욕에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졸업 후 2012년 그곳에서 여러 전시에 참여하면서 예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Ethereal Breath〉, 2023, 뿔, 실크, 약 25m² 가변 설치

“뉴욕에서 유학하던 시절, 미술관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좋아하는 작품을 만나면 그 작품 하나를 거의 한 시간 동안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가와 함께 있는 것 같고, 현실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합니다. 작품에 대한 애호를 넘어서 작가에 대한 존경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나는 이것 좋아하고 이걸 정말 중요해!’라고 말하는 용기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런 작품을 만나 작가로부터 삶을 배우고, 제 인식을 바꾸고, 저 또한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앞서 그런 예술적인 삶의 태도를 결심하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용기를 가지게 될 때 스스로 예술가라고 느낍니다.”



“5월에 마친 개인전 〈손끝의 소리〉에 전시한 〈Ethereal Breath〉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청력을 상실한 뒤 가까운 사람들이 제 귀에 대고 말하는 경험이 잦아졌습니다. 귀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순간, 불에 닿는 소리는 동시에 피부에 스치는 입김과 그것의 온도로 기억됩니다. 〈Ethereal Breath〉는 얇고 가벼운 뿔(tulle)을 수검으로 겹친, ‘사사삭’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제 몸에 닿는 촉각적 경험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얇은 뿔이 겹쳐지며 수채 물감처럼 퍼지는 무지개 색상의 공간은 소리가 제게 닿는 순간 미세하게 변화하는 감각의 경험을 보여줍니다. 공간에 들어온 관객은 이곳을 거닐며 뿔이 몸에 스치며 소곤소곤 그들의 피부에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면 항상 제 몸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작업실에 들어서는 순간 ‘앉고 싶다’, ‘눕고 싶다’고 느끼면 그 몸의 자세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찾아나갑니다. 제 몸이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원하면 그런 재료를 두고 몸이 원하는 감각으로 변화시켜봅니다.”

← 〈Eleleu〉, 2023, 뿔, 털실, 200×100×7cm
↓ 〈도란도란〉, 2024, 패브릭, 폴리스, 약 25m² 가변 설치



겹치거나 포개면서 점점 굳어지기를 빼고 제가 처음 원한 감각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창작 과정을 거치기에 직관에 무뎠지 않고 항상 ‘직감gut feeling’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실비아 플라스 Sylvia Plath · 클라리스 리스펙토르 Clarice Lispector · 엘렌 시슈 Hélène Cixous와 같은 여성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몸으로부터의 언어를 예민하게 관찰하는 데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클로디 원징게르 Claudie Hunzinger 의 소설 『내 식탁 위의 개 Un chien à ma table』를 읽은 후에는 이 책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두고두고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노년의 여성 소설가로 곧 사라져 버릴, 언젠가 사라져 버릴 것들을 마주하며 글로 기록되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성 작가로서 무엇을 낳아야 하는지를 고뇌합니다. 글을 읽으며 저는 작가와 함께 살아 있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 몸이 끊임없이 외부에 닿은 채 무언가를 감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와 세계의 경계가 어떻게 흐려지고 어떻게 ‘우리’가 확장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낳을 수 있는지를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는 9월, ‘인사1010’에서 〈자기의 한 끄트머리-손〉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청각적 점자와 같은 ‘버블-셀 bubble-cell’ 형태 위에 다양한 색상의 털실을 겹치고 엮어나가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의 손끝에서 털실 한 줄 한 줄을 풀어 버블-셀 위를 더듬거리고 채울 때 저의 끄트머리는 세계와 이어지고 확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시 관객의 경험과 이어지고 소리처럼 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연남동의 신생 공간 ‘전시장’에서 개인전이 있습니다. 1.8평 정도의 작은 방, 정적의 세계에서 촉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펼쳐볼 계획입니다. 공간에 숨을 채운 섬유를 겹쳐나가면 내 몸이 공간에 닿을 때 나는 모든 소리가 스며들며 조용해집니다. 그런 고요와 달리 천을 겹치는 행위가 만들어낸 형태는 마치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공간에 퍼져나가게 되지요. 관객이 방 안에 들어와 그들의 몸을 통해 고요함 속의 다채로움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안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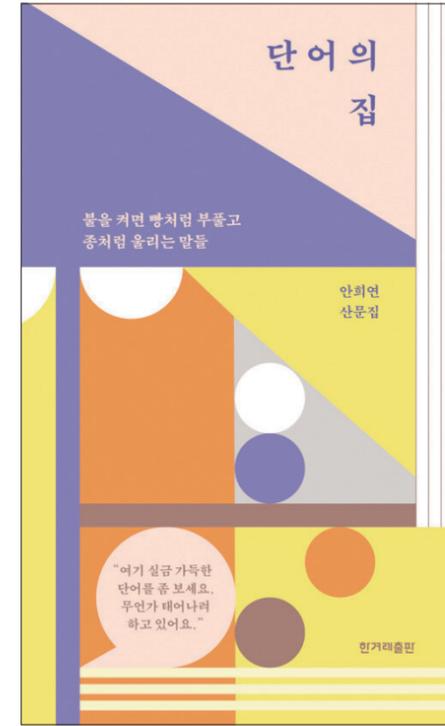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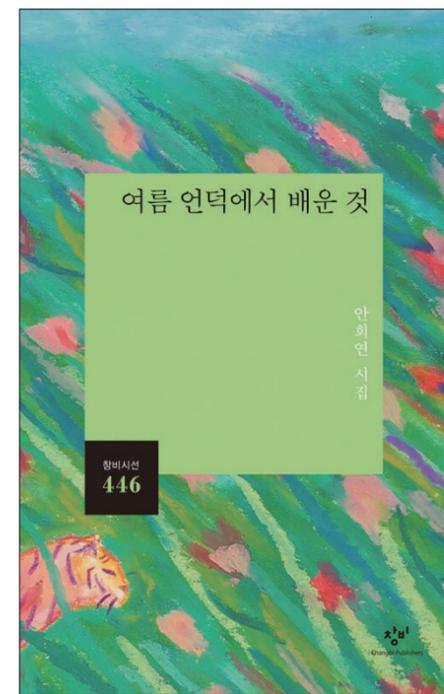
문학/시
b.1986
연희문학창작촌
2022~2023년 운영위원
서울시민예술학교 2024년 봄 시즌
'시를 낭독하는 저녁'

“ 시 쓰는 안희연입니다. 2012년 창비신인시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²⁰¹⁵, 『밤이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는』²⁰¹⁹,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²⁰²⁰과 산문집 『단어의 집』²⁰²¹, 『당신이 좋아지면, 밤이 깊어지면』²⁰²³ 등을 썼습니다. 세계의 비밀을 예민하게 목격하기 위해, 슬픔의 결과 곁을 더 잘 헤아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읽고 쓰는 삶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대학 재학 시절 잡지 '대학내일'의 문화팀 학생리포터로 활동했습니다. 1년간 휴학하고 신간 영화 리뷰, 영화제 취재, 인터뷰 등을 맡아서 했어요. 혼자 쓰고 혼자 보는 글이 아닌, 공적 자리에서의 글쓰기를 연습하는 계기가 된 시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읽기와 쓰기에 대한 감각이 제 안에 자리 잡았고, 제 이름으로 된 책을 갖고 싶다는 열망도 품게 됐고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글쓰기의 복판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 첫 시집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하는 예술의 물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것이었고, 제가 다 가능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까지 다다르는 것이더군요. 시집의 독자께서 소회를 공유해 주실 때마다 수신자가 있다는 것, 그 수신자는 보이지 않는 유명이 아니라 형태와 목소리를 가진 살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독자에게 '눈eyes'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쓰는 글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느껴요. ”

“ 저의 시는 인간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세계의 소멸과 존재의 몰락이 진행되는 가장 어두운 세계를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자의 통증을 쓰는 시인'(문학평론가 김수이)이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살아 있다는 이유로 경험하게 되는 존재론적 고독의 풍경을 포착하는 시인이고, 무딘 상태에서는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인간 내면의 미세한 균열과 파동을 섬세하게 언어화하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전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창작에 임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이들의 연이은 죽음을 경험하며, 어떻게든 죽음에서 삶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시를 씁니다. 어쩌면 저에게 시는 '함부로 죽지 말아 달라'는 간청'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 산문집 『단어의 집』 표지

↳ 2020년 출간한 시집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 가장 최근에 낸 산문집 『당신이 좋아지면, 밤이 깊어지면』



“ 영감은 온갖 곳에서 찾아옵니다. 주로 버스나 기차 같은 이동 수단에서 메모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두서없이 적어둔 단어나 문장, 생각의 편린이 재료가 돼 한 편의 시로 태어나곤 해요. 특히 저는 단어를 가지고 사유하는 습성이 강해 단어 메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혹은 언어화되기 이전의 이미지, 특히 사진이나 회화 작품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시가 잘 나아가지 않을 땐 사진집을 뒤적이거나 필히 몸을 움직여 전시를 보러 가요. 언어화되지는 않았으나 말을 걸어오는 장면 앞에 섰을 때 자연스레 제 안에서 생성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 순간과의 만남이 정말 즐겁고 기다려집니다. ”

“ 영유정 작가의 드로잉과 페인팅을 좋아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갤러리 forever☆에서 열린 개인전 『눈에서 돌 From snow to stones』에 다녀왔는데, 문을 열고 갤러리로 들어서는 순간 이전과 다른 시간성을 경험했어요. 밖은 차가분주히 오가는 봄날의 도로변인데 갤러리 안은 적막이 흐르는 거울의 복판이었거든요. 돌 혹은 나무 위에 눈이 쌓인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쌓으려면 쌓을 수 있는 바탕, 토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마 순서상으로는 바탕을 먼저 그린 뒤 그 위에 눈을 쌓았을 텐데, 전시의 제목은 그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작가가 '돌에서 눈'이 아니라 '눈에서 돌'로 흐르는 방향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 생각해보게 됐고요. 저에게 그것은 어떤 본질에 관한 물음으로 읽혔습니다. 작가가 눈을 그리는 마음과 돌을 그리는 마음이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다르다면 왜 달랐을까, 어떻게 달랐을까, 제 안에서 여러 질문이 생성되더군요. 저를 이토록 많은 질문 속에 데려다 놓았으니 좋은 전시가 아닐 수 없겠지요. ”

“ 6월 안에 새 시집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4년 만에 선보이는 신간이라 떨리는 마음이에요. 한참 걷는 동안에는 알 수 없지만 문득 뒤돌아볼 때 알아차리고 마는 것들이 있지요. 생각하기도 전에 이해돼버리는 것들이요. 저는 계속 그것을 시로 구현해내고 싶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관한 탐구를 멈추지 않으면서요. 잔존하는 반딧불 같은 시, 끊어지기 직전의 필라멘트 같은 시, 그러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시를 계속 써보겠습니다. ”



지역문화팀 강민혜 다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열린 마음과 다정한 시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강민혜입니다. 대학에서 국문학,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했어요. 문화예술을 다방면으로 즐기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교집합이 바로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생각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에 들어왔으니 벌써 5년 차네요. 처음 발령받은 서울예술치유허브를 거쳐 생활문화팀에서 근무하다 지역문화팀과 생활문화팀 사업이 합쳐지면서 현재는 지역문화팀에 있습니다.

지역문화팀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요. 저희 팀의 업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25개 자치구 문화기관(문화재단 및 구청)과 연계해 지역 기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 그리고 서울시민의 생활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전자로는 서울 25개 자치구가 각각의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N개의 서울'이나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와의 협력 사업,

후자로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서울 생활예술 활동기반 조성사업, 서울생활예술플랫폼 운영 등이 있습니다. 지역문화팀은 서울이라는 지역을 토대로 좀 더 많은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지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일상 안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예술에 관한 정보를 망라한 서울생활예술플랫폼을 알고 있다고요. 2022년 플랫폼 구축 단계부터 업무를 맡아 지금까지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생활예술플랫폼 (lifeculture.sfac.or.kr)은 서울 내 생활예술 동호회, 공간, 프로그램 등 생활예술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정보 포털입니다. 생활예술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위치 기반 검색도 가능하고, 자치구를 기준으로 정렬해볼 수 있기에 거주지나 직장 근처에서 이뤄지는 생활예술 관련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플랫폼 공개 당시의 '서울생활문화플랫폼'에서 '서울생활예술플랫폼'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시민의 여가 문화 활동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의 개념 또한 넓게 바라보자면 역사, 문화재, 자연생태,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 있지요. 재단은 그중에서도 '예술'에 집중해 시민의 일상 속 생활예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플랫폼의 이름 또한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생활예술'로 바뀌었고요.

올해 또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서울 생활예술 활동기반 조성사업과 올가을 열리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을 기획·운영하고 있어요. 합창과 오케스트라 장르에서 생활예술을 해온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해 협력 예술가·단체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마스터클래스 등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9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무대에서 공연하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치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연 동호회를 지원하고, 선정된 동호회에도 마찬가지로 축제 무대에서 공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개 모집은 6월 9일까지 진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해주세요! 나아가 사업에 함께한 시민들이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생활예술 자체가 기억에 오래 남는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또 이후에도 삶과 예술이 함께하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상에 예술이 함께하는 시민들과 자주 만나겠네요. 2021년 생활문화팀 근무 당시 '생활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을 맡았는데요. 사업이 끝날 즈음 참여한 팀을 인터뷰한 책을 냈어요. 인터뷰집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 기억나더라고요. 함께 인터뷰집을 만들어준 에디터와 디자이너, 무엇보다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진심으로 좋은 생각을 나눠주신 덕분이지요. 여러 업무로 지치는 순간에도 함께하는 이들의 다정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람도 느끼고, 업무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지난해 서울생활예술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아직 운영 초반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방문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재방문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민이 애용하는 것은 물론, 생활예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이 되도록 올해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생활예술'처럼 우리 삶에 예술이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문화예술은 삶과 일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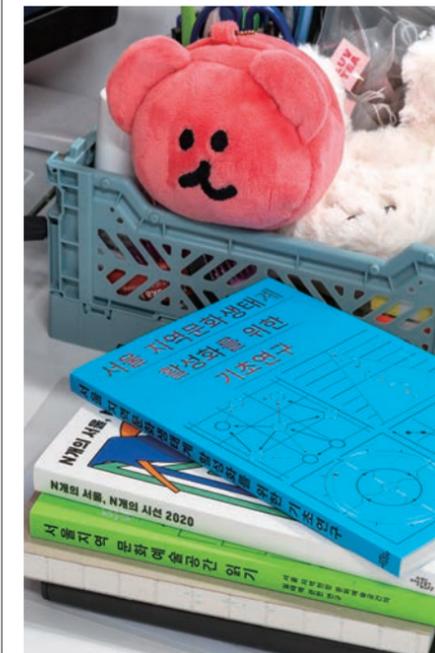


가닿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테고요.

문화예술행정이로서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나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내며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지, 어떤 방향이 진정 예술가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 더 많이 질문하고 더 깊이 고민하며 답을 실행해나가고 싶어요.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가장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열린 마음과 다정한 시선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영감을 떠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열린 자세로 다양하게 사고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소소한 것들도 꼼꼼히 살핀다면 익숙한 것에서도 새롭고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할 때도 다정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비난에 그칠 테니까요. 다정한 시선으로 깊이 파고들 때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무살 서울문화재단에 축하 인사를 건네주세요. '스무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청춘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아름답지만,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죠. 또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그간 닦아온 길에서 만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기에 더욱 가치 있는 일들을 훌륭하게 해내기를 바라요.



올여름, 당신을 춤추게 할 서울 비댄스페스티벌

열정적인 브레이킹 축제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던 '서울비보이페스티벌'이 '서울비댄스페스티벌 DANCE SEOUL'로 노들섬에 돌아온다. 바뀐 건 이름만 아닐 터. 장르와 프로그램, 축제 기간도 모두 한층 확대해 돌아온 올해 축제를 미리 살펴보자!

노들섬, 자유로운 그루브로 가득 찬 축제의 섬으로!
노들섬에서 즐기는 초여름의 축제로 스트리트 문화의 매력을 알린 서울비보이페스티벌은 작년까지 브레이킹 장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관객 수요를 반영, 브레이킹 장르를 넘어 스트리트 댄스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여기에 다양한 체험과 스트리트 패션 아이템을 즐길 수 있는 브랜드 팝업 부스도 만나볼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더욱 알찬 볼거리와 즐길 거리 가득한 한강 노들섬. 축제를 즐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쉬운 노들섬 자체가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자유로운 그루브가 종일 흐르는 '힙'한 축제의 섬으로 변신할 테니까.

특히 올해는 체험 행사의 규모를 확대해 노들섬을 찾은 모든 이들이 '댄스', '음악', '체험' 세 가지 재미를 모두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력을 담았다.





당신을 춤추게 할 다양한 프로그램
올해는 축제 기간이 이틀로 확대된 만큼 다양한 매력을 담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에 이틀간 축제 콘셉트를 각각 '인터내셔널 브레이킹 이벤트' (6월 7일 금요일), '글로벌 스트리트 문화 페스티벌' (6월 8일 토요일)로 나눠 구성했다.

↑ 축제 첫째 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LIL G (베네수엘라), AYU (일본)
↓ 프랑스 게스트 '레지팀 옵스트럭션', 네덜란드 게스트 '더러기즈'

DAY 1 인터내셔널 브레이킹 크루 배틀
첫째 날은 서울비댄스페스티벌의 전신인 서울비보이페스티벌의 역사를 잇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이날 프로그램은 기존 국내 브레이킹 팀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선발전'을 뛰어넘어, 더욱 큰 규모로 준비했다. 해외 팀과 국내 팀이 참여하는 배틀 무대가 마련돼 국내외 우수한 크루의 경연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사전 예선을 통과한 국내 6개 팀과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2개 팀이 무대에서 8강부터 치른다. 심사위원단 또한 3개국(베네수엘라·일본·한국)으로 구성돼 더욱 다채로운 평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DAY 1 브레이킹 키즈 사이퍼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브레이킹 신scene의 새로운 흐름을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그동안 축제 현장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무대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올해는 메인 무대에 청소년 브레이킹 댄서들을 위한 사이퍼cypher 무대(프리스타일을 펼치는 즉흥 무대)가 펼쳐진다. 브레이킹이 울려퍼지는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무대는 단순한 개인의 순위 경쟁이 아닌 함께 힙합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8명의 청소년 댄서들이 모여 브레이킹의 새로운 에너지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DAY 2 오픈스타일 퍼포먼스 콘테스트
올해 페스티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자, 스트리트 댄스 장르의 다채로운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무대. 다양한 스타일의 전문 퍼포먼스 크루를 위한 콘테스트로, 우수한 스트리트 콘텐츠로 예선을 통과한 참가팀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페스티벌 현장에서 진행되는 투표 결과로 승자가 결정되니 마지막 팀의 무대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

DAY 2 오픈스타일 3 on 3 배틀
스트리트 댄스의 매력은 그 다양성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락킹·팝핑·하우스·힙합 등 다양한 스타일이 무대를 빛내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3 대 3 배틀. 메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DJ의 즉흥 플레이에 맞춰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화끈하고 열띤 경쟁이 펼쳐진다. 치열한 경쟁 이면의 상대에 대한 존중을 통해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감동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

DAY 2 브레이킹 스페셜 배틀 스테이지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소울번즈 Soul Burnz'와 유럽 연합팀 '더러기즈 The Ruggedz', '레지팀 옵스트럭션 Legiteam Obstruxion'이 10 대 10 인원으로 펼치는 열띤 배틀도 놓칠 수 없다. 서울비댄스페스티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대륙 간 이벤트 배틀 무대로, 흥미진진한 브레이킹 무대를 축제 두 번째 날에 관람할 수 있다.
↓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이자 한국 대표팀 '소울번즈'





청량한 낮과 노을 지는 저녁을 장식할

힙합 뮤지션 공연

축제 첫째 날 대한민국 최초로 브레이킹 잼breaking jam과 배틀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는 밴드 '브레이킹 심포닉'이 오프닝 무대를 화려하게 연다. 이 밴드는 드럼·트럼펫·색소폰·키보드·기타 등 다채로운 악기 연주자로 구성돼 스트리트 댄스의 환상적인 동작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독보적인 음색을 지닌 래퍼 원슈타인이 무대에 올라 감각적인 힙합 공연으로 첫째 날 밤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자동차 엔진소리부터 드럼 비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리듬을 표현하는 국내 대표 비트박스 스테디가 비트박스의 화려한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저녁에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Show Me The Money>의 우승자이자 최근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근황을 알려 화제를 모으고 있는 래퍼 비와이의 공연이 준비됐다. 관객의 귀에 꽂히는 특유의 강렬한 디션으로 힙합의 정수를 선보이며 마지막 날 밤도 뜨거운 환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여덟 가지 체험 프로그램

- ① 스के이트보드 파크존
신나게 배우는 스के이트보드.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고, 전문 보더의 퍼포먼스도 구경하는 시간
*아티스틱스케이트보드 퍼포먼스 매일 오후 1시, 2시 30분, 4시(하루 3회)
- ② K-팝 랜덤 플레이 댄스
무작위로 재생되는 K-팝 하이라이트에 맞춰 다 함께 춤추는 플래시몹
- ③ 실크스크린 프린팅 D.I.Y 패션템
티셔츠에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인쇄한 페스티벌 패션 아이템 만들기
- ④ 그래피티 그리기
그래피티 존에서 자유롭게 뿌리고 그려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스트레스도 날려보기
- ⑤ 인스턴트 셀프 타투
개성 있는 나만의 일회용 타투 새기기
- ⑥ 인생샷을 위한 토퍼 부채 만들기
더위를 날릴 부채 토퍼를 마음대로 꾸며본 다음 축제 현장 곳곳을 포토존으로 활용하기
- ⑦ 스트리트 댄스 원데이 클래스
락킹·왁킹·하우스·힙합! 내가 원하는 스트리트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

⑧ 브레이킹 원데이 클래스

놀이와 춤이 만난 '프리즌브레이크'를 통해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

체험 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노들스퀘어에서 운영되며, 체험별 운영일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비엔날레페스티벌 공식 인스타그램(@b.dance.seoul)에서 확인하거나 운영사무국(02.758.2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지면에서 모두 소개하지 못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팝업과 그래피티 아트 전시, 페스티벌 방문객 대상 이벤트가 가득하다. 6월 7일과 8일 이틀간 '힙'한 분위기를 가득한 노들섬에 들려 자유로운 여름의 열기를 내뿜는 스트리트 문화를 짜릿하게 즐겨보자!

서울비엔날레페스티벌
6월 7일과 8일 | 노들섬 전역



일년내내 예술적! 노들섬 상설 기획 프로그램



나른한 도시의 피서지에서 푸릇한 도시 텃밭을 거쳐 복합 문화 공간 노들섬이 된 지금,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예술 경험으로 365일을 채울 '예술섬 노들'을 만들기 위해 매일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5월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세계질 내내 축제를 즐길 수 있고, 야외무대에서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이라는 다채로운 공연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더불어 언제나 노들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가득합니다. 렉처 퍼포먼스 시리즈 '라이브하우스-뜻밖의 토크콘서트', 노들서가 시각예술 공간인 '아트 스페이스 옻지', 인터랙티브 전시 <읽>과 QR코드 공간 투어 '노들한바퀴', 거리 공연 '구석구석 라이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라이브하우스
'라이브하우스'는 음향·조명·악기 등 시설이 갖춰진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선 매주 주말 밴드, K-팝, 클래식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바빠 돌아가는 라이브하우스의

주말이 지나면 평일의 이곳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평일의 라이브하우스를 깨워보기로 했습니다. 음악 전용 공연장의 정체성을 살리되, 좀 더 많은 시민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음악 기반 문화교양 강연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예술선 노들만의 특색을 더하고자 예술가 또는 기획자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로 설정을 더했습니다. 그에 걸맞은 강연자로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 김찬용 도슨트, 안인모 피아니스트, 이희문 경기소리꾼을 초대해 영화×음악, 미술×음악, 클래식 음악과 국악을 깊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 23일과 5월 7일 푸른 기운이 돌아오는 봄의 노들을 배경으로 영화 속 음악과 영화음악가를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라이브하우스-뜻밖의 토크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지는 시리즈도 재미, 감동, 교양까지 가득 채워질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보는 경험을 확장한 노들서가

이전까지 책이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존재한 노들서가는 다이내믹을 더해 공연·시각예술·문학을 접할 수 있는 예술 경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줄곧 사용되지 않던 노들서가 내 계단 앞 공간의 네모반듯한 매력을 살려 시각예술가와 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적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모서리였던 에지edge 공간이 '에지있게' 예술적 기품을 뽐어내는 감각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트 스페이스 엠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처음으로 담길 콘텐츠는 신당창작아카데미·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금천예술공장에서 함께하는 시각예술가의 작품을 만나보는 서울문화재단 전·현직 입주작가 소개입니다. 이후 사진·디자인·미디어아트 등 더욱 다양한 시각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술 체험 공간으로 확장해보고자 합니다.

노들서가 한편에 나무 한 그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을 어귀를 지키는 고목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는데, 사실 진짜 나무는 아닙니다. 미디어 작가 그룹 하이브에서 기획한 《잎》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과 참여자, 참여자와 참여자를 이어주는 상호작용 프로젝트입니다. 터치 패드에



메시지를 입력하면 마치 나뭇잎처럼 폴랑폴랑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이미 1만 명 가까운 시민이 함께해주셨고 대부분의 잎이 진심 어린 사랑 고백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노들섬에 오시게 된다면, (물론 혼자여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잎》에 남기고 행복한 기억 한 조각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컷으로 남기는 노들섬

노들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단연코 노들섬 그 자체입니다. 낮에는 햇살로, 밤에는 도시의 불빛으로 만들어진 운술, 천연기념물이 서식할

만큼 완전한 자연에 둘러싸여 구석구석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노들섬을 동네방네 자랑하는 마음으로 숨겨진 풍경들을 골라 담아 공간 투어를 만들었습니다. 노들섬이 고른 네 가지 풍경을 찾아가면 알록달록한 박스가 쌓인 모양의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로 조형물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미션을 확인할 수 있고, 네 개 장소에서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노들서가에 마련된 포토매틱에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립니다. QR코드 공간 투어 '노들한바퀴'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를 고심해서



풍경을 골랐기에 최종 미션 완료 후 인생샷을 남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션 장소 ① 후투타코와 마녀김밥 매장 사이 테라스 ② 노들스퀘어에서 잔디마당 가는 길 ③ 노들서가 루프탑 엘리베이터 옆 ④ (노들섬 동-서) 연결다리 발코니

섬, 다이내믹한 예술 공간으로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인 '구석구석 라이브'를 올리는 노들섬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50팀의 예술가가 5월부터 11월까지 노들스퀘어에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5월에는 저글링·아코디언·댄스·힙합 등 흥미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6월에도 탁 트인 야외에서 진행되는 거리 공연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고, 예술가에게 따뜻하고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노들섬이 기획한 다양한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stac.or.kr)과 노들섬 누리집(nodeu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들섬은 동이 틀 때부터 노을이 질 때까지의 모든 풍광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미 '섬지'가 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노들섬은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축제, 공연, 전시와 체험까지 예술섬 그 자체가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다이내믹한 예술적 삶의 공간으로 바뀌는 이곳! 언제나 노들섬을 찾아 예술로 풍만한 하루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하우스-뜻밖의 토크콘서트

[미술×음악] 김찬용 도슨트
6월 25일과 7월 23일
[클래식 깊이] 안인모 피아니스트
8월 13일과 9월 10일
[국악 깊이] 이희문 경기소리꾼
10월 1일과 11월 19일

6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에티오피아의 수도 | 면적 527km² | 인구 547만 명
1인당 GDP 1,475달러

2021년 유네스코 연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영화·시청각산업은 매년 최대 7천만 달러 (한화 약 954억 원)의 수익을 내며 에티오피아 GDP에 이바지했다. 또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디자인·창조 서비스, 시각예술·공예, 문화유산, 출판, 문학은 아디스아바바의 창조·문화 분야에서 가장 트렌디한 영역이다. 최근 도시의 패션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과 디자이너의 성장과 더불어 아프리카 대륙을 섬유·가족·라벨 등 자재 생산의 진정한 목적으로 보는 확대된 인식은 아디스아바바 패션위크HAF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조산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금 모델과 정부 정책은 이 분야에 남겨진 과제로, 사회 속 문화의 역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의 잠재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불평등과 가난은 도시의 문화를 위협하는 존재이며,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접근, 즉 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을 재빠르게 수용해 점점 더 고도로 국제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창조산업을

고려하면 아디스아바바의 디지털 접근성과 기술 발전은 제한적이다.

아디스아바바에는 뜻깊은 문화 공간과 기관, 행사가 다수 있다. 에티오피아국립박물관, 메넬리크2세 동상, 티글라친 기념비 등 박물관과 역사 건축물, 여러 로컬마켓, 아디스아바바 디자인위크, HAFW, 동아프리카아트컬처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종교적인 유산과 역사 시설이 주를 이루면서도 현대 예술계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아디스아바바는 변화한 문화·예술 산업의 자질과 잠재력을 지닌 도시로, 뛰어난 예술성으로 알려진 창작자, 경쟁력 있는 창작물, 풍부한 역사, 넘치는 인구, 준비된 인프라로 무장해 있다. 적절히 조정되기만 하면 이곳의 창조경제는 독특하고 진귀한 예술품을 기반으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출 것이다. 에티오피아 문화관광부는 에티오피아의 문화·관광 명소와 이에 대한 조사·보존·개발·홍보를 책임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도시 차원에서 아디스아바바의 문화 정책은 현재 개발 중이다.

↓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사진전 〈Everyday Ethiopia Exhibition〉



7 **하라레Harare**

짐바브웨의 수도 | 면적 940km² | 인구 157만 명
1인당 GDP 1,676달러

다양한 민족과 활기 넘치는 창조·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하라레는 공연장·미술관·음악 스튜디오 등 멋진 문화 공간이 도시 전반에 펼쳐져 있다. 엠비라·마림바로 연주하는 전통음악과 무천고요muchongoyo 같은 전통춤은 여러 무대에서 인기가 높다. 또한 하라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국제 예술·문화 축제인 하라레국제예술제Harare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 Arts, HIFA를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축제는 음악·춤·연극·시각예술·공예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및 전 세계 아티스트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한다. 전통과 현대의 스타일이 융합된 모습에서 도시의 건축, 패션, 문화 공간 등 일상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전체를 아우르며 생동하는 문화는 창조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체성, 역사 및 문화유산과의 연관성을 뛰어넘어 문화 전반의 역할에 대한 향상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 창출, 수익 생성 등 가능성을 통해 문화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각종 연구에서 창조산업이 짐바브웨 GDP의 약 6.9%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도시

↑ 짐바브웨의 가수이자 기타리스트 Tariro neGitare의 공연 ©Rodney Gumbo/The Protege)

경제 전반에서 문화·창조산업의 영향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당 분야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짐바브웨는 경제 규모 중 비공식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2위에 달한다. 다만 하라레시의회는 비공식 경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대부분 '비공식'에 해당하는 창조·문화 분야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비공식 경제의 이득과 기여도를 입증해 창조·문화 경제를 더욱 지원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다수의 삶의 질을 개선할 정책 개혁을 끌어내기 위한 데이터가 절실하다.

2015년 짐바브웨 국가문화정책 수립에 참여한 청소년스포츠예술휴양부는 창조 공간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다. 이 부처는 축제와 아트페어를 포함해 창조 분야 전반에 새로운 혁신 트렌드를 이끌고자 한다. 단, 유적지 관리는 내무문화유산부가 책임지고 있다. 짐바브웨의 사회·경제·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자면, 부처 간 업무 분리가 예술과 문화의 입지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하라레는 물론 짐바브웨 전체에서 문화가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 간 협력이 필수다.

8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 면적 1,645km²
인구 577만 명 | 1인당 GDP 6,776달러

요하네스버그는 문화·언어·예술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다. 이곳은 창조경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며 관광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도시는 예술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창조·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재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정부의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다.

요하네스버그는 세 곳의 시립 극장 (조버그극장·루드푸르트극장·소웨토극장), 요하네스버그 미술관, 요하네스버그 공공도서관, 소웨토 및 알렉산드라의 여러 예술 커뮤니티 센터(보수 중인 잉클 톱 커뮤니티센터, 모폴로 예술센터 등), 다수의 문화유산지구, 박물관, 유적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년 시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아트 얼라이브 페스티벌Arts Alive International Arts Festival, 요하네스버그카니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유산을 기념한다. 또한 요하네스버그는 학술·민간 부문과 비영리 인프라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책 수립과 시행 측면을 구체화하는 주·지방 체계를 기반으로 국가 문화 정책 '예술, 문화 및 유산 백서'를 제정했다. 요하네스버그는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독자적인 문화 정책이 존재하나, 이러한 정책이 단일 정책 또는 전략 문서에 기재돼 있지는 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체육예술문화부를 중심으로 국립예술위원회·국립영화영상재단·국립유산협의회·남아프리카 문화유산자원청, 그리고 기타 국영기관을 통해 문화 발전을 지원한다. 요하네스버그시의 예술문화유산부는 창조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에 문화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내 모든 공동체에 창조·문화의 표출을 보장하며 미술관·박물관 등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해 도시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창조도시로 발돋움하는 요하네스버그의 비전을 통해 경제, 사회, 도시 재생, 인재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프리카 창조도시의 미래 2

세계 주요 도시의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설립된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WCCF은 매년 세계도시문화리포트World Cities Culture Report, WCCR를 비롯해 도시의 통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아프리카 대안: 창조도시의 미래 보고서The African Alternatives: The Future of Creative Cities Report'는 아프리카 11개 수도를 선정,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문화적 동향에 관해 분석했다. 아프리카는 2050년까지 두 배 가까이 인구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도시가 품은 창조적 가능성과 문화적 잠재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서울]은 국내 독자를 위해 5월호에 이어 6개 아프리카 도시에 대한 WCCF의 리포트를 소개한다.



세계도시문화포럼의 '아프리카 대안: 창조도시의 미래 보고서' 원문은 해당 누리집(worldcitiescultureforum.com)에서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캄팔라Kampala

우간다의 수도 | 면적 189km² | 인구 380만 명
1인당 GDP 964달러

캄팔라 주민 대부분은 인공 아프리카 국가나 인도·중국 출신으로, 도시의 풍부하고도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갖추고 다면적인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우간다의 민족 전통예술은 전 세계 수많은 수집가의 이목을 끌며 국가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목재를 깎거나 쇠를 단련하는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드는 예술품과 도자기 및 밀랍(섬유 염색) 제품도 유명한 민족 예술품에 속한다.

1966년 폐지된 전통·문화기관이 1993년에서야 회복됐기에 우간다의 문화 분야 역사는 상당히 짧지만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캄팔라에는 박물관·공연장·영상 부스(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도시 및 지방의 상업 센터에 위치)·미술관·문화센터·허브 등 다양한 문화기관 및 인프라가 존재한다. 우간다 박물관, 우간다 국립문화센터, 캄팔라 독일문화원, 바임바 시각공연예술센터, 서클러 디자인 허브, KQ 허브, MoTIV, 이노베이션 빌리지, 아프리카 작가조합, 디어문화센터 등이 그 예시이다. 캄팔라는 또한 캄팔라 디자인위크, KLA ART, 네게네게 페스티벌 등 다수의 문화·창조산업 행사와 축제를 주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우간다 문화산업의 막대한 부문의 핵심에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며, 1984년 이래 문화산업이 우간다 내 지속적인 성장에 주목하고 있음이 보고됐다.

국가 차원에서 우간다의 여성노동사회개발부는 2006년 문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2019년 검토안을 제출했다. 우간다 정부는 가능한 영역에

↑ 우간다 국립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대한 기술 지원 및 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 분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 캄팔라에서 열린 지역회의에서는 예술과 건축으로 도시 전체를 포괄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성장을 위해서는 문화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10 키갈리Kigali

르완다의 수도 | 면적 732km² | 인구 125만 명
1인당 GDP 940달러

르완다의 창조 분야는 주로 관광·컨퍼런스·전시에 집중돼 있다. 르완다 항공의 노선이 늘어나고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르완다와 수도 키갈리는 국제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는 행사를 더 많이 개최할 기회를 얻었다.

키갈리는 창조·문화 분야에 관한 한 인재 육성에 앞장서며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유적지와 박물관·미술관으로는 키갈리 제노사이드 추모관, 르완다 미술관, 이네마 예술센터 등이 있고, 도시에는 여러 창조·문화센터, 허브,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다. 키갈리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아프리카 인 컬러 페스티벌, 동아프리카 관공의 밤 페스티벌, 우부문투 아트 페스티벌, 키갈리 사진 페스티벌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또한 창조 분야는 공예품 및 바구니 세공과 판매를 통해 키갈리의 비공식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르완다의 토산품인 아가세게 홍보 프로젝트 같은 도시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갈리에 공식 문화 정책은 없지만, 2050 키갈리 도시종합계획에서 문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문화에 관한 일정 수준의 전략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계획은 문화 도시로서 키갈리의 목표 및 전략을 서술하며 관광, 문화, 도시의 활력과 유산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룬다.

이에 앞서 2002 키갈리 경제개발전략에서는 문화도 관광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전략에 집중했다. 해당 분야가 지닌 성장 기회는 존재감이 분명하고, 확대된 관광 및接客 분야에서 얻는 이익은 일자리 창출, 과세표준 확대, 후속 개발 마련, 외부 소득의 도시 유입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문화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관광에 있어 문화의 우선순위와 역할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문화가 사회 및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역할, 문화의 모든 측면 및 일자리 창출, 기업가 소득, 경제에 기여하는 문화의 폭넓은 역할에 주목해야만 해당 분야의 잠재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며 더욱 포괄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 르완다를 중심으로 한 범아프리카 플랫폼 '아프리카 인 컬러'



11 나이로비Nairobi

케냐의 수도 | 면적 703.9km² | 인구 503만 명
1인당 GDP 2,099달러

나이로비는 영화·방송·라디오·게임·출판 등 중요 산업과 더불어 다양하게 변창한 창조·문화 분야를 자랑한다. 이 중 최근 부상하는 분야는 그래픽 디자인 및 패션으로, 특히 패션 분야는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히고 섬유 산업은 다국적 공급망의 일부로 작동한다.

나이로비의 문화 인프라는 일부 대규모 국가기관(케냐 문화센터·나이로비 국립박물관·케냐 국립기록보관소 등)이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창조·문화 산업을 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허브, 단체, 네트워크와 함께 수많은 주요 기관 및 조직(박물관, 갤러리, 공연에 활용되는 라이브 음악 공간 및 다목적 공간 등)이 나이로비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국제 문화 협력 측면에서 여러 주요 문화 조직이 나이로비에서 활발히 지부를 운영 중이다. 독일문화원·영국문화원·스위스 예술위원회·프랑스문화원·유네스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래전 자료이기는 하나 기존 데이터에서는 케냐 GDP에 대한 창조경제의 기여도가 2025년 기준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케냐의 경제 성장

↑ 맥밀런 기념도서관 복원을 위한 어린이 참여 세션 ©Wakitanga Visuals

및 발전에 주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케냐 창조·문화산업의 활동, 영향력, 가치에 대한 데이터는 더 많이 필요하며, 특히 GDP 기여도, 문화 소비층 수치, 문화 소비자 정보, 문화 비용, 문화 환경 통계 등과 관련한 데이터가 절실하다. 창조경제, 기술 및 관광, 도시 개발과 연계함으로써, 문화는 현대의 공간에서 재가동되며 문화유산의 접근성과 그 전수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계약과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법적 규제 및 법적 대리권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케냐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정책을 보유하고 있고, 케냐 헌법은 국가 발전에 있어 지역 고유 관행의 역할 및 모든 형태의 문화적 표현을 국가가 장려함을 보장하며 문화를 국가의 기초로 인정하는 데 전념한다. 창조·문화산업에 대한 국가, 지방 정부, 나이로비 내 국제기관의 지원은 대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관광과 연계해 고용 창출, 빈곤 감소와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의 산업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술 및 문화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민간 부문의 관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공간 및 공동체 재활성화, 관광 다각화 측면에서 활발하다.



서울연극센터 공공프로젝트 '봄'

아시아플레이

첫배우, 첫희곡



06
06

06
13

06
20

06
27

서울연극센터 1층 라운지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주최주관: 서울연극센터 X 아시아플레이

Japan



Vietnam



Thailand



China



COOL
LUMINOUS

박현갑의 문화의 창
청와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해보자
삶의 책장을 넘기며
'오래된 미래'를 걷는 시간
동시대적 고전 읽기
새로운 고전의 계보학을 위한 서문
산책인 플레이리스트
함께 듣고 싶어서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전기톱 조각가 90세 김윤신의 화양연화

청와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해보자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5월 5일 청와대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어린이들이었다.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동이 가족 등 360여 명이 군악대의 환영 광파르 아래 버블 매직쇼를

즐겼다. 대통령과 악수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색연필, 컬러링 북, 대통령실 시계 선물도 받았다.

매년 어린이날을 맞아 대통령이 해오던 초청행사지만, 요즘은 국민 누구나 원하면 청와대 관람이 가능하다. 청와대 이전을 약속한 윤 대통령이 2년 전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서부터다.

청와대 개방 이후 지금까지 545만 명이 청와대를 찾았다. 월별로 살펴보면 야외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4~6월에 월평균 20만 명 안팎이 찾았다고 한다. 외국인 관람객도 늘었다. 개방 첫해인 2022년 5월 0.3%이던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지난 4월에는 21%를 넘어섰다.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던 청와대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개방된 청와대 관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다. 실무적인 관리와 활용은 청와대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명소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역사적 상징성과 특수성을 지닌 청와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되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더해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미술협회를 비롯한 문화예술계는 이러한 시각문화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 환영한 바 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인다. 대통령 접견실과 집무실, 침실 구경이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청와대를 찾는 국민을 즐겁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 활용만으로는 청와대 개방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청와대는 국가 권력의 산실이나 다름없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나라 살림을 챙긴 곳이다. 이 과정에서 권력 남용과 국정 농단으로 탄핵과 친·인척 구속 수사가 반복되는 등 대통령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시도했다.

과거에서 미래를 배운다고 한다. 청와대는 관람을 위한 공간으로의 활용만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반복되어온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을 끌어내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때 개방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청와대 본관 내 국무회의실 공간을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국무회의는 국정 기본계획과 일반 정책,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역대 대통령과 각 부 장관이 국무회의실에서 국정을 심의하듯, 청소년들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되어 청소년 문제를 놓고 결론을 도출해봄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면 청와대 개방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문체부나 청와대재단 누리집에 청소년 국무위원 모집 안내 코너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면 된다. 청와대가 문화예술 복합 공간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소통의 장으로도 열려 있음을 온라인에서부터 알리자는 것이다.

국무위원 지원자가 많아 선출 방법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출 방식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시·도별, 학교급별, 성별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선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면 된다.

국무회의에서 상정할 안건은 일정 기간을 정해 신청받되, 청소년이 회의의 주재하는 만큼 청소년의 관심사로 좁히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2학년의 체육 수업 강화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초등 1·2년생의 체육 교과 분리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 논란이 된 사안이다. 부모들은 비만 해소와 체력 향상 기회라며 환영하나 초등 교사들은 체육 수업 중 다치면 교사 책임이 된다며 여건 조성 미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새로운 학교 인권조례를 제정하려 들면서 학생 인권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나 기후 위기 극복 방안 등 미래 세대에 중요한 이슈도 청소년 눈높이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무위원 선정과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 선정까지는 청와대재단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이후 최종 안건 심의는 청와대 국무회의실에서 청소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국무위원에 도전하거나 안건을 낸 학생들은 본인의 위원 선출과 안건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국무회의 진행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와 다른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토론으로 접점을 찾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청소년 국무회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면 미래 인재 양성은 물론 청와대를 진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촉매제로도 작동할 것이다.



‘오래된 미래’를 걷는 시간

손정승 『아무튼, 드림』 저자

문득 여름이 끝났다고 느낀 어느 날 창덕궁에 간 적이 있다. ‘궁궐을 걷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운영자는 문화유산교육전문가 자격과 숲 해설가 자격을 갖춘 이시우 작가로, 일찍이 『궁궐 걷는 법』²⁰²¹(유유)을 펴낸 분이었다. 당시 나는 여러 일로 제법 심란한 상황이었는데, 멀리 여행을 떠날 수도 없어서 자연을 품은 궁궐로 향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궁에 가면 가장 큰 문에서 출발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한 방향으로 쪽 돌고서는 ‘다 본 건가?’ 하는 마음으로 애매하게 나오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다. 궁궐의 식물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창덕궁의 나무와 들꽃, 멀고 가까운 풍경을 원 없이 누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구종궁궐이었다. 분명 궁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사람만이 꾸릴 수 있는 코스였다. 그런 든든한 안내인이 2년 반 만에 어린이들을 위한 ‘궁궐 탐험대’ 시리즈를 펴냈다. 첫 타자인 『재밌게 걷자! 경복궁』²⁰²⁴(주니어RHK)을 펼친 순간, 그날의 습한 공기가 코끝에 훅 끼쳐왔다.

궁궐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니 좋은 글이 나오리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나 귀여운 책일 줄은 몰랐다. 서평화 그림작가 덕분이라. 그림은 궁의 위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루한 느낌이

없고, 궁궐의 귀여움과 아기자기함을 오색빛깔로 뽑내고 있었다. 책의 만듦새는 또 어떨까. 어린이책답게 글씨는 시원시원했으며, 들고 다니기 편한 크기였고, 표지 안쪽은 분리해서 지도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집에서만 읽기엔 너무 아까운 책이었다. 휴일이 많던 5월의 어느 오후, 그렇게 나는 경복궁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광화문 옆 분식집에서 라면과 김밥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광화문 앞으로 걸어갔더니 월대가 앞으로 나와 있었다. 궁궐 앞에 높고 넓게 쌓은 단으로 무대라도 활용했다는데, 일제 강점기 때 어이없이 사라진 유산이었다. 그 월대가 복원되자 해태도 제자리를 찾아 월대 맨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책을 펼치니 완전히 여행자의 기분이 되었다. 궁궐 유지에 도움이 될까 싶은 정도로 저렴한 표값을 지불하면서, 한편으론 그 덕에 마음 편히 오는 시민들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잠시 해 보았다.

경복궁은 십 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경복궁을 떠올리면 마음은 좋으면서도 산책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규모라는 느낌이 늘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르지! 일말의 걱정 없이 책에서 소개하는 장소마다 멈춰서 꼼꼼히 읽고 다음을 향해 걸었다. 근정전 마당의 정1품 자리에서는 ‘앗, 내 자리네’ 하는 개그를 하고, 강녕전에 가서는 뒤쪽 교태전으로 쏘옥 걸어갔을 왕을 상상해보고, 바깥 외출을 잘하지 못하는 왕비를 위해 만든 아미산 앞에선 애처로움에 잠시 젖어보기도 했다. 탐험대장님(어느새 대장님으로 추대되었다!)이 내준 탐험 미션

덕분이다. 탐험 미션은 답이 정해진 것도 있고 내 상상력이 정답이 되기도 하는 질문들인데, 답을 거듭할수록 조선의 진짜 정승이 된 기분으로 걸을 수 있었다.

확실히 이 책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궁궐 걷는 법』을 같이 읽었더니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같은 풍경을 설명할 때도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듣는 이에게 맞춰 바꾸려고 애쓴 마음이 전해졌다. 어른은 『궁궐 걷는 법』을, 아이는 『재밌게 걷자! 경복궁』을 나란히 들고서 걷는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지금까지 출간된 궁궐 안내서 또한 누군가의 노고가 담긴 귀한 자료지만, 이번 안내서는 제목 그대로 정말 ‘재밌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줄만 알았던 궁궐이 입체적으로 살아났다. 궁궐 속 수십 채의 건물에서 웃고 울고 먹고 자고 버선발로 뛰어다녔을 이들이 저 멀리서 지나가는 듯했다. 책이 아니면 절대 몰랐을 궁궐의 귀여움을 엿봐서일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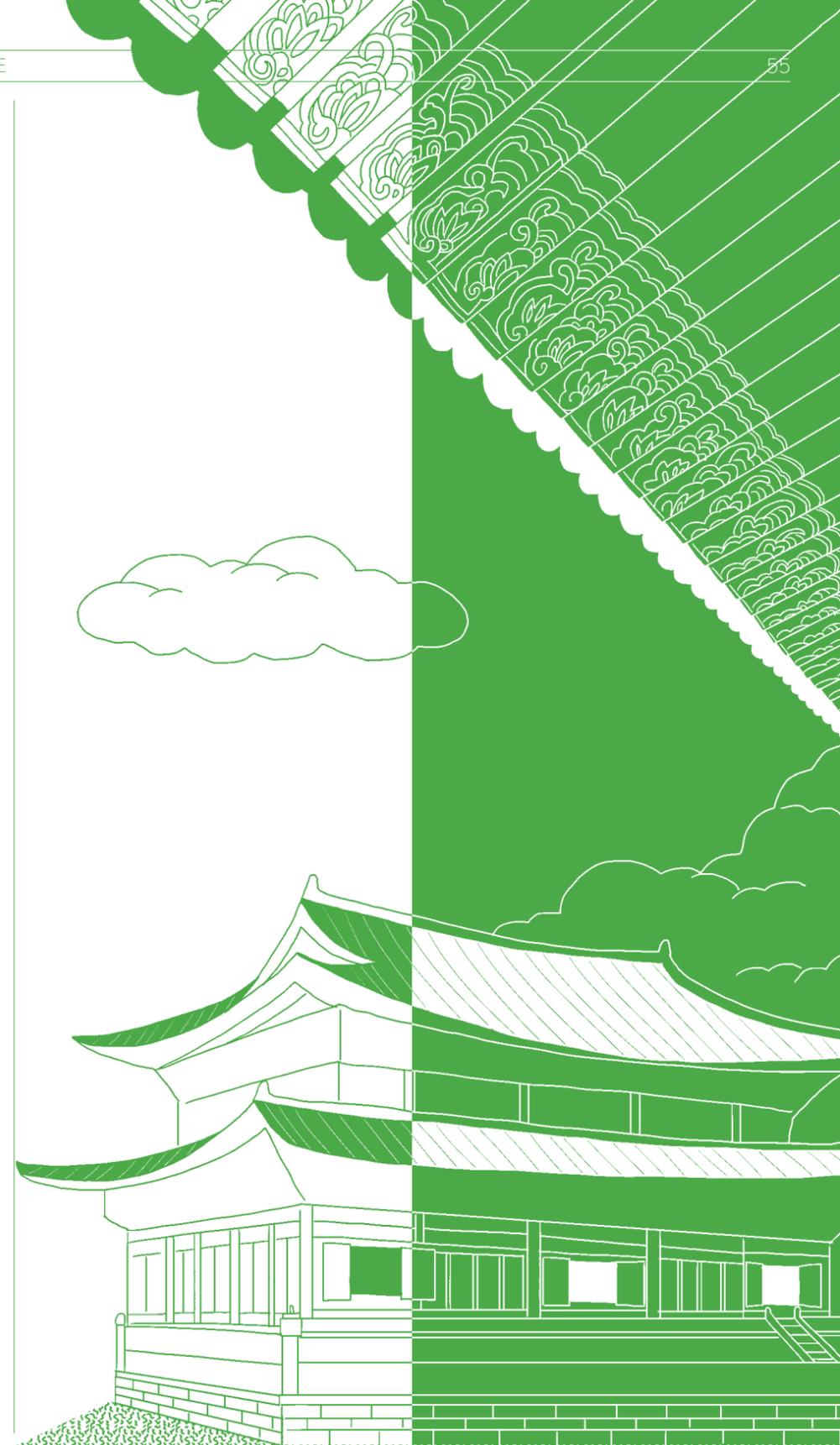
경복궁은 조선의 으뜸가는 궁궐이지만 역사를 보면 조선의 처음과 끝을 함께했을 뿐 중간에 300여 년은 존재가 미약하다.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1865년 재건을 시작해 꾸준한 복원이 이뤄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막힌 조선의 운명이 담겨 있다. 그런 역사를 똑똑히 목도하며 온몸으로 견뎌낸 경복궁은 생색을 내는 대신 고요한 품을 내어주고 있었다. 구석구석 피어난 꽃들, 크고 진한 그늘을 드리운 나무, 잔물결이 이는 경회루의 연못…

그사이를 걷는 이들은 평화로운 풍경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눈과 마음이 절로 환해지는 시간이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함께하며 경복궁 산책을 마치고 싶었으나 급격한 체력 저하로 중간쯤 빠져나오게 되었다. 전 같았으면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보고 나오지도 몰라서 고개를 가웃거렸을 텐데, 이번엔 내가 선 자리를 파악해 다음을 기억하며 나올 수 있어 기뻐다. 다음 산책은 책의 절반이자 경복궁의 절반인 동쪽과 북쪽을 거닐어보기로 했다. 백호가 배웅하는 영추문을 나서는데 무척 산뜻한 기분이 들었다. 책이 나의 행동을 이끈 게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이다. 늘 곁에 있어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에 외려 잘 모르게 되어버린 존재를 제대로 알았을 때의 기쁨이란! 걷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면 좋아하는 친구에게 든든한 경복궁 안내인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책은 시리즈물이라 아직 네 곳의 궁궐이 더 남아 있다. 나는 이 든든하고 다정하고 박식한 궁궐 전문가가 다른 궁궐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몹시 궁금하다. 겹겹이 쌓인 과거의 시간이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알아야 할 궁궐이 남아 있고, 읽어야 할 책과 걸어야 할 곳이 남아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글 제목의 ‘오래된 미래’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의 책 제목에서 빌려왔습니다.





새로운 고전의 계보학을 위한 서문

전영지 공연 칼럼니스트·드라마티크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알파벳 표기가 생전에 불리던 그녀의 이름에 가장 가까운지조차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사람. 930년에서 935년 사이에 태어나 973년에서 1002년 사이에 사망한 호로스비타Hrotswitha, 호로츠빗Hrosvit 또는 로스비타Roswitha. 그녀는 ‘최초의 여성 극작가’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은 줄곧 ‘고전의 계보학’에서 누락되어왔다. 이를테면, 연극사 교과서로 가장 흔히 쓰이는 오스카 G. 브로CKETT Oscar G. Brockett의 『연극의 역사History of the Theatre』2005(연극과인간)는 목침 같은 외형의 두 권의 책으로 총 1,325쪽에 달하는 분량이지만, 호로스비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소략한 소개로 같음할 뿐이다.

예배극이 생길 무렵 독일 북부 간더샤임 수도원의 울수^{律修} 수녀인 호로스비타가 테렌스의 극을 모방한 6편의 극을 썼으나 주제는 종교적이었다. 그녀는 테렌스의 문체에 끌려 극을 쓰게 되었으나 이러한 이교도적인 작품이 미치게 될 악영향이 두려워 적절한 대안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작품들—‘아브라함Abraham’, ‘칼리마쿠스Callimachus’,

‘돌키티우스Dulcitus’, ‘갈리카누스Gallicanus’, ‘파프누티우스Paphnutius’, ‘사피엔티아Sapientia’—이 그 시대에 공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501년 처음 출판되었고 이후 16세기 종교극과 교훈극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호로스비타의 작품은 여러 면에서 연극사적으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호로스비타는 지금껏 알려진 첫 여성 극작가이며 고전 시대 이후에 알려진 최초의 극작가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첫 여성 극작가’ 또한 호로스비타가 성취한 업적에는 한참이나 못 미치는 명명이다. 6편의 희곡뿐 아니라 8편의 전설과 2편의 서사시를 집필한 그녀는—미국의 한 비교문학 학자가 기술하듯—“기독교 최초의 극작가이자 최초의 색슨족 시인이며 독일 최초의 여성 역사학자”라고 칭해야 마땅하다. 상황이 이러한바, 진부할 정도로 ‘최초’를 탐닉해 온 역사서의 문법을 기억할 때 호로스비타에 대한 경시는 쉬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녀의 작품들은 시간의 시험test of time을 통과하지 못한 듯하나,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은 호로스비타가 아니라 시간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를 잊어 우리가 지금껏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를 물으며 호로스비타의 작품을 찾아 읽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그로테스크하다. 그녀의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남성에게 겁박당하고, 이에 담대하게 저항하는 듯하나 끝내 살해당하거나 스스로 죽음을 청하고, 심지어 죽은 후에도 자신의 몸을 탐하는 남성의 욕망에

위협당한다. 하여 지금 공연을 올리고자 한다면 그 공연의 기획자는 ‘트리거 워닝trigger warning’의 문구를 오래도록 다듬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허나 이는 역설적으로 호로스비타의 이야기가 가부장제의 억압이 얼마나 야만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뜻일 터다. 게다가 그녀가 설계한 비판의 대상은 가부장제를 넘어선다.

호로스비타가 집필한 희곡 작품 여섯 편은 모두 오롯이 남아 있지만, 한 작품만 살펴보자. ‘성녀 아가페, 치오니아, 이레네의 순교The Martyrdom of the Holy Virgins Agape, Chionia, and Hirena’라고도 알려진 ‘돌키티우스’는 세 명의 여성이 디오클레스 황제에게 소환되어 끌려온 상황에서 시작한다. 황제는 그녀들이 혈통이 고귀하고 외모가 아름다우니 마땅히 자신의 궁정에 있는 지체 높은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며 개종을 요구하고, 여성들이 이에 거부하자 분노하여 그들을 집필관 돌키티우스 관하의 감옥으로 보낸다. 그러나 그녀들의 미모에 반한 돌키티우스는 “여가시간에 종종 방문”하고 싶다고 여성들을 창고에 감금한다. 잠시 후, 그는 창고로 찾아들지만 ‘술과 팬pots and pans’을 세 여성으로 착각하여, 온몸이 그들음으로 더럽혀지는 것도 모른 채 그 주방 도구들을 애무한다. 이 우스꽝스러운 몸부림을 지켜보는 세 여성의 시선을 따라 관객·독자는 여성들의 승리를 기대해보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 아가페와 치오니아는 화형당하고, 이레네 또한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막이 내린다.*

세 여성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켰으며 그리하여 구원받을 것이니, 이 극의 결말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술과 팬’이다. 돌키티우스가 이들과 펼칠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상상한다. 이 장면에서 ‘술과 팬’은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양초와 찻주전자처럼—의인화되어—‘춤추고 노래’하지 않는다. 호로스비타는 그들에 대해 그 어떤 묘사도 남기지 않았다. ‘술과 팬’ 그 자체에 어떤 활력이 이미 잠재되어 있었다는 듯, 돌키티우스의 오인을 마법이라거나 ‘신의 역사’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나는 호로스비타의 생략에서 생태학적 위기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신유물론적 사유를 발견한다. ‘인간 이하나 비인간less human/non-human’으로 간주해 온 존재들에 대한 반퇴계적 목소리가 전근대에 이미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돌키티우스’의 세계에서 ‘술과 팬’은 실로 고유의 존재 방식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터다. 오인은 여성의 몸을 그저 ‘술과 팬’ 정도로 여겨온, 여성이든 사물이든 자신의 마음대로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믿어온 인간 남성, 돌키티우스에게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여성이 그러하듯—사물은 그저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살아 있다. 오인을 유도하여 타자에게 군림하려는 오만한 인간 남성을 조롱하며, 조롱받도록 하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 허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돌키티우스’의 ‘술과 팬’은 타 존재를 지배의 대상으로 여겨온 남성들에게 호로스비타가 보내는 재치 있는 반격이라고, 그녀는 반격의 주체를 사물로 설정하여 인간의 군림하는

못된 습성을 보다본질적이고 급진적으로 되묻는 것이라고. 신유물론 학자 제인 베넷Jane Bennett이 『생동하는 물질Vibrant Matter』2020 (현실문화)에서 말하듯, “죽어 있거나 철저히 도구화된 물질이라는 이미지[는] 인간의 자만심과 정복 및 소비 등 지구를 파괴하는 우리의 환상을 키”워왔으니 말이다.

‘여성 선구자들’의 이름을 지워온 전통적 연극사 계보학에 대항하여 호로스비타를 다시금 세상에 알린 저명한 여성주의 연극학자수 엘런 케이스Sue-Ellen Case는 말한다. “호로스비타를 극장 공연에서 배제한 것은 최초 여성 극작가의 중요성을 억압”했으며 “이러한 억압은 그에 따른 가치 저하를 낳음으로써 선구자와 뒤이은 이들 모두 미미한 관심을 받[게 했]다”고. (『여성주의와 연극 Feminism and Theatre』1997, 한신문화사) 나는 케이스의 비판을 딛고 호로스비타에게서 발견되는 신유물론적 사유를 지렛대 삼아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호로스비타를 모범 삼는 글쓰기가 이어졌다면, 인류가 조금은 다른 근대를 경험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물론 역사의 가정에는 답이 없다. 그러나 일찍이 고전의 계보학이 달리 써졌다면 역사 또한 달리 써졌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고전의 계보학을 새로 쓰는 것이야말로 다른 미래를 위한 고전 읽기라고 믿는 까닭이다.

*‘돌기티우스’의 내용은 카타리나 윌슨Katharina Wilson이 영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한 *Hrotsvit of Gandersheim: A Florilegium of Her Works* (D. S. Brewer, 1998)를 참조했습니다.

함께 듣고 싶어서

김호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아직 데이터가 그리 많지 않아 수집과 정리가 가능하다. 30개월이 된 딸아이의 음악감상기에 관한 이야기다.

좋은 음악을 선별해 양껏 들려주겠다는 나의 결심은 아이가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이전까지 우리 집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곡이 늘 흐르고 있었다. 단조 악구가 조금이라도 오래 지속되더라도 하면 어둡고 부정적인 무언가가 드리울까 염려하고 조심하던 시기가 있었다. 요즘의 아이는 ‘로보카폴리’, ‘피피 구조대’의 주제를 따라 부르며 늘 어딘가로 출동해 무언가와 싸운다.

좋은 연주곡을 들려주고 싶은데, 환경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 바깥놀이를 할 때는 당연히 듣기가 어렵고, 실내에서는 각종 장난감이 조악한 소리를 내기에 음악을 틀어두어도 묻히곤 한다. 때로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도무지 고요한 상태를 맞기가 어렵다. 그나마 가능한 때라면 그림 그리기, 만들기 같은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 차로 이동하는 시간 정도다.

10분 남짓. 집중력이 유지되는 이 짧은 시간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다. 밝고, 경쾌하고, 의욕을 북돋울 만큼 기분 좋은 긴장감이 유지되는 다섯

곡을 모아 들었다. 중요한 건 어른이 듣기에도 마찬가지로 여야 한다는 것. 집중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건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으며, 엄마 혹은 아빠가 진정으로 즐거워야 그 행복이 아이에게도 전해진다. 밀착한 채로, 함께 귀를 완전히 여는 순간은 아이가 자랄수록 자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소중한 마음을 느끼며, 함께 듣는다.

몰입의 세계로, 즐겁게

알렉상드르 데스플라Alexandre Desplat의 ‘Obituary’는 플레이리스트의 첫 곡으로 자연스럽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의 오프닝 테마다. ‘부고’라는 뜻의 제목이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편집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잡지사의 핵심 멤버들이 마지막 호를 활기차게(!) 준비하는 장면을 열어주는 역할로 쓰인다. 뒤통거리는 듯한 튜바 사운드와 하프, 목관악기들, 하프시코드와 피아노가 시대를 모호하게 규정한다. 영화에서 배경으로 삼는 ‘블라제’라는 도시는 웨스 앤더슨 감독이 상상한 가상의 도시. 쓸데없이 비장하지 않게, 가볍게 몰입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



아이들 위한 플레이리스트

알렉상드르 데스플라는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작은 아씨들> 등 신비로운 분위기의 서정적이고 선율적인 음악 스타일로 잘 알려진 영화음악가인데, 초현실적인 그림엽서 같은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에서만 발견되는 묘한 매력이 있다. <문라이즈 킹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앨범에서 신비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다양한 분위기의 사운드트랙을 찾을 수도 있다.

벨기에 출신의 젊은 피아니스트 플로리안 노악Florian Noack이 올해 발매한 신보의 맨 마지막 트랙으로 실은 ‘I Wanna Be Like You (The Monkey Song)’ 또한 ‘가벼운 심오함’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안성맞춤이다. 아이의 주의를 기분 좋게 환기하기에 좋다. 원곡은 디즈니 소속 음악가로 활동했던 서먼 형제Richard M. Sherman & Robert B. Sherman가 영화 <정글북>을 위해 쓴 곡이다. 재치한 리듬에 허풍스럽고 익살스러운 표현이 즐거움을 자아낸다.



태아트로 델라고 예술학교의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노악은 영화의 긴 서사중 일부였던 이 곡을 단독으로 감상할 수 있게 짧은 전주를 써넣는 한편, 원곡의 매력을 충분히 살리는 감각적인 피아노 연주로 단순하고 선명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노스텔지어를 자아내는 빈티지한 무드의 원곡이 어른 감상자에게는 더 흥미로운 선곡일 수 있으나, 아이에게는 조금 난해한 선택일 것이다.

집중과 교감의 행복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1886와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1945은 어린이를 위한 연주곡 리스트로 늘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표 작품이다. 생상스는 감각적인 관현악법으로 여러 동물의 이미지를 능란하게 그려 보이며, 브리튼은 헨리 퍼셀의 선율을 따와 악기들을 하나씩 소개한 후 오케스트라를 다시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전체 곡의 완성도를 높인다. 두 작품 모두 음악 듣기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친절하고 세련된 안내서 같다.

‘동물의 사육제’ 중 서주 이후 처음 등장하는 ‘사자 왕의 행진’이 이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잘 맞다. 피아노와 현악기의 경쾌한 움직임과 중간중간 등장하는 동양적인 선율이 늠름하고 당당한 사자의 움직임을 재미있게 묘사한다.



동물 이미지나 애니메이션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몇몇 ‘동물의 사육제’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는데, 테아트로 델 라고 예술학교 Teatro del Lago School of the Arts의 연주 실황이 특히 좋다. 상상력을 끌어올리는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과 뛰어난 연주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어 이미지에 과몰입하지 않으면서 감상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다.

브리튼의 작품은 초연 당시 악기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중간중간 곁들여 연주했지만, 오늘날에는 작품 전체를 하나의 변주곡처럼 쭉 이어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전곡을 심도 있게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주제 이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목관악기를 위한 변주를 떼어 듣는 것도 방법이다. 높은 음역의 부드러운 소리들이 기분 좋은 긴장감을 만든다.

마지막 곡은 장 이브 티보데Jean-Yves Thibaudet가 들려주는 거슈윈의 피아노곡 ‘Dance of the Waves’. 티보데는 ‘거슈윈 랩소디’라는 제목의 신보에 그동안 한 번도 녹음된 적이 없는 거슈윈의

작품을 네 곡 포함했는데, 이 곡이 그중 하나다. 두 사람이 함께 주는 기분 좋은 춤을 묘사하는 짧은 곡이다.

아이는 이 시간의 무엇을 기억할까. 음악이 주는 즐거움, 집중이라는 감각, 교감의 행복 그 무엇이라도 좋을 것이다.

전기톱 조각가 90세 김윤신의 화양연화

박현주 뉴시스 미술전문기자

‘합이합일 분이분일 合二合一 分二分一’. 마치 주문 소리 같은 제목을 단 조각 작품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이런 순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는 그는 지난 4월 개막한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가장 돋보인 작가다. ‘90세 전기톱 조각가’로 유명한 김윤신의 생애 첫 베니스 비엔날레 진출은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구순 나이에도 꼳꼳한 허리와 트렌디한 패셔니스타 면모의 작가는 ‘백발의 카리스마’로 전시실을 압도한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각국의 카메라 세례를 받은 그는 “이제부터가 시작 아니겠냐”며 “이젠 나를 완전히 미술을 통해서 내놓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가 전기톱으로 썰고 깎아 만든 무심한 나무 조각과 대리석(돌) 조각은 휘황찬란한 현대미술 작품 속에서도 놀리지 않는 기세를 보였다. 있는 그대로의 나무와 인간의 노동으로 나온 작품은 원초적인 에너지가 강렬하다.

어느 해보다 ‘화양연화 花樣年華’를 맞은 조각가 김윤신은 지난해 부상했다. 40년 전인 1984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면서 한국에서는 잊힌 존재가 됐지만, 그의 열정적인 작업은 빛이 났다. 지난해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연

전시가 화제가 됐다. 작가의 생애 첫 국내 국공립 미술관 개인전인 이 전시는 ‘김윤신 발견’이라며 열광적인 호평이 이어졌다. 이현숙 국제갤러리 회장과 세계적인 화랑인 리만머핀 Lehmann Maupin의 대표가 전시를 관람하면서 김윤신은 날개를 달았다. 올해 생애 처음으로 상업 화랑 두 곳과 동시에 전속 계약을 맺었다.

유명 화랑과의 전속 계약은 국제 무대로의 길을 열었다. “1세대 여성 작가인데도 이제껏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이현숙 회장이 직접 전시를 추진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 행사인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 참여 작가로 선정된 것.

김윤신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작업 열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1974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이후 오로지 작업에만 매진해왔는데, 무려 50년이 지나 이런 크고 중요한 전시에 초대되리라곤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2024년이 내게 큰 행운이 깃든 해인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세상에 응답하고자 한다”며 기쁨에 찬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김윤신의 조각 <합이합일 분이분일>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어 작가의 조각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작품 제목이다. 작가의 설명은 이렇다. ‘합승과 분승은 동양 철학의 원천이며 세상이 존재하는 근본이다. 나는 1975년부터 그런 철학적 개념을 추구해오고 있고, 그래서 나의 작품에 ‘합이합일 분이분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는 두 개체가 하나로 만나며, 다시 둘로 나누어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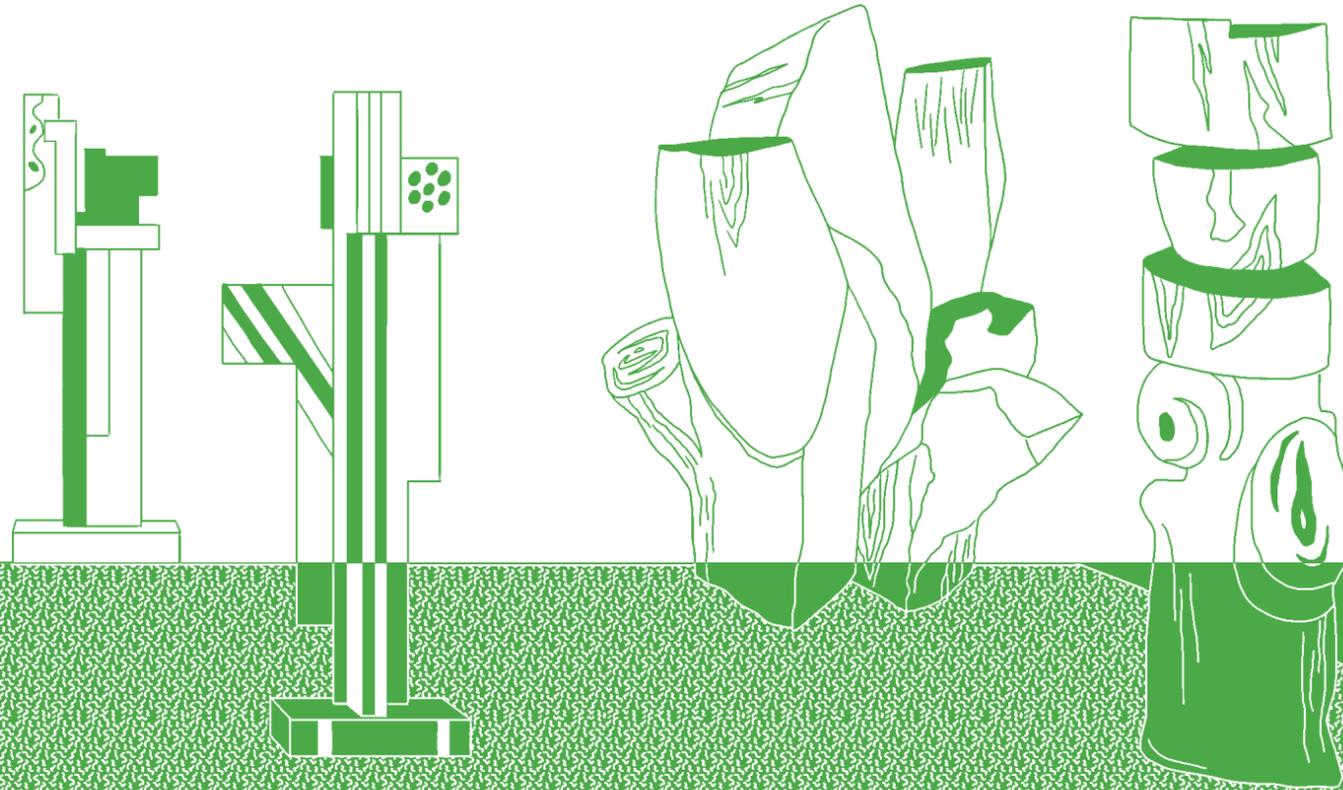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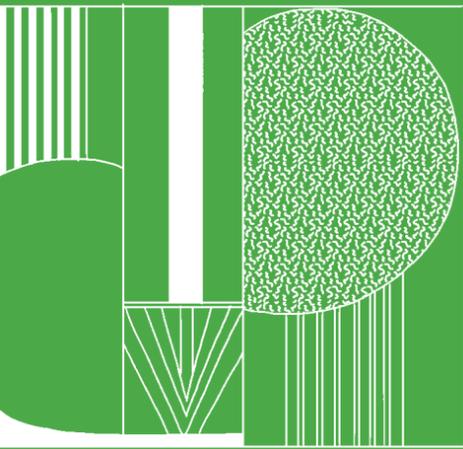
인간의 존재에서처럼 계속적으로, 무한대적으로 합과 분이 반복된다. 나의 정신,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영혼은 하나가 된다.’

아름드리나무가 너무 부러워 한국에서 교수(상명대학교)로 살다 직업까지 포기하고 아르헨티나로 건너간 작가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 상업 화랑과 베니스 비엔날레에서의 러브콜은 ‘한국에서 더 일해보라’는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에 오니까 주변에서 그 나이에 일을 하다니, 저렇게 무거운 톱을 들다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작가는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여전히 건강한 열정을 과시했다. “나는 나이 상관없이 그냥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작업하다가 딱 가는 거, 그게 내 소원이에요. 힘이 닿는 데까지 작품을 남기고 싶어요.”

찰나의 순간을 작품에 잡아내고 있는 김윤신은 황금보다 귀한 ‘지금’에 충실하고 있다. “앞으로 조각을 이어 붙인 ‘회화 조각’이라는 것을 연구하려고 결심했어요. 이 작품을 세계 미술사에 남기고 싶어요.”

1935년생 조각가는 라이징 스타로 다시 젊어지고 있다. “끝이 없는 게 예술”이라는 그는 마치 신화속 시지프처럼 날마다 전기톱을 들고 나무와 대화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이 반복적으로 오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똑같아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삶이 예술이죠. 예술이 곧 제 삶이에요.”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COMMENTS

서울도서관에서 [문화+서울]을 만났어요. 5월호에 실린 서울서커스페스티벌에 관한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좋은 기사에 늘 감사드립니다!

최승화 님

TEMPO RUBATO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5월의 마지막 한 주를 앞둔 오늘 오후도 벌써 여름 한낮처럼 느껴졌는데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 가면 날씨에서 전해지는 기온이 아닌 음악의 분위기에서 풍기는 온도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38.2℃로 쓰인 이 LP에는 어떤 곡들이 담겨 있을까요?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EPILOGUE

'좋은 배우야'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졌다는 우미화 배우님 말씀을 듣고, 나의 일과 삶 속에 존재하는 이들이 마음 다칠 일 없도록 항상 유념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POSTSCRIPT

장미가 피기 시작할 즈음
오랜만에 걷기 좋은 경복궁 옆길을 지나
정영선 조경가와 김윤신 작가의 전시를 보았다.
아, 50년은 해야 하는 것이었다.

전민정 편집위원



WITH COMPANION

가족 다 함께 서커스나들이가던 날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주요 배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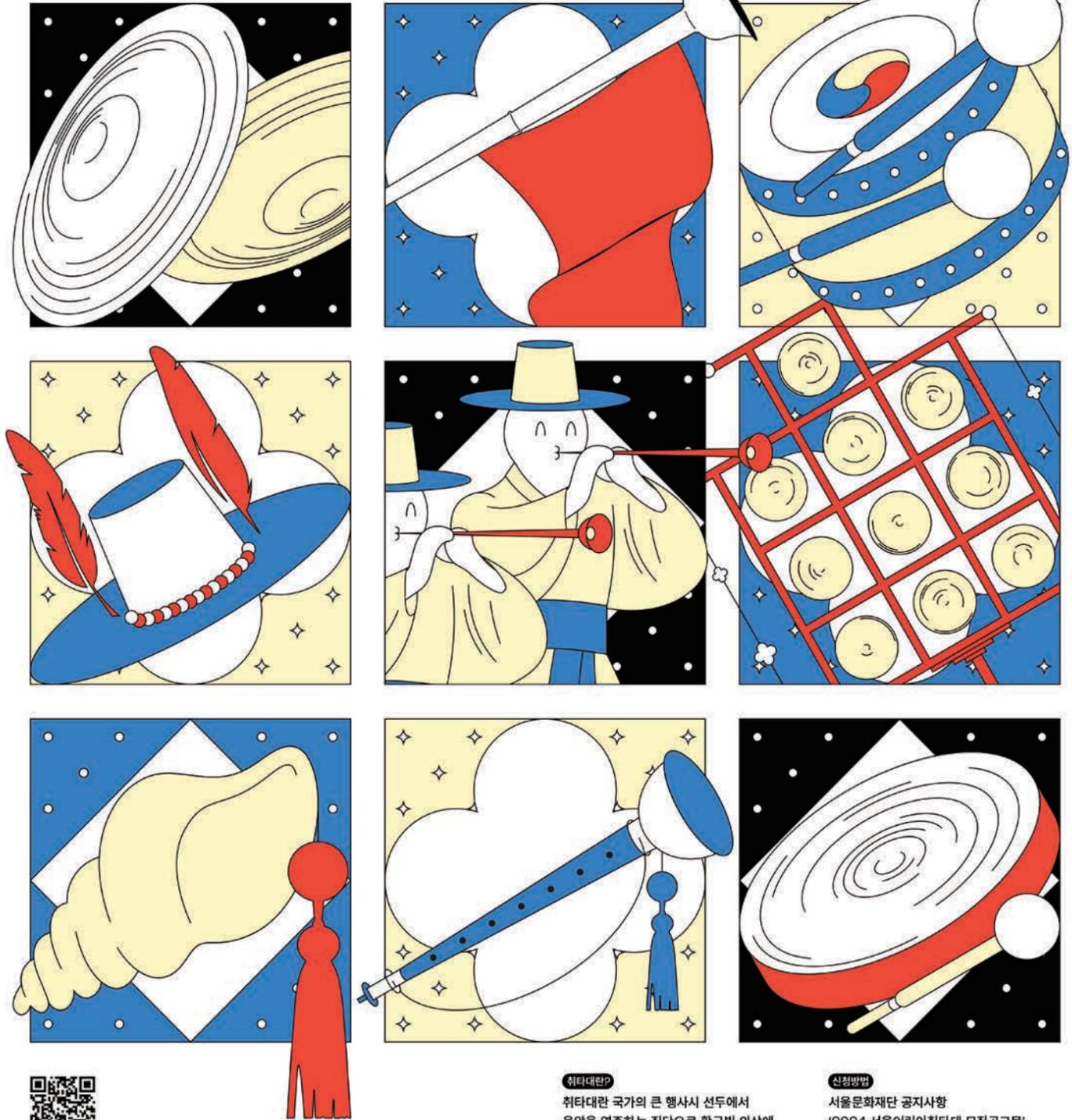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어린이취타대 창단 1기 단원모집



SEOUL MY SOUL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취타대란?

취타대란 국가의 큰 행사시 선두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집단으로 황금빛 의상에
전통악기를 불거나 치며 행진하는 전통
악대입니다.

모집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6월 23일 (일)

모집대상

서울 거주 초등학생 4~6학년 40명 내외

신청방법

서울문화재단 공시사항
'2024 서울어린이취타대 모집공고문'
확인 후 참가신청서 이메일 제출
(gbartedu@sfac.or.kr)

문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팀
02-2105-2313/2315